

한국 언론 신뢰찾을 자구책 급하다

한국언론은 기자의 사명감 저하와 기업으로서의 미디어 경영환경의 악화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또 다시 제기됐다. 언론위기에 대한 극복책으로는 새로운 언론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경영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미디어 수용자들로부터의 실추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처방이 제시됐다.

대한언론인회는 2월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로 언론인인 조용중 전 연합통신 사장과 김진국 중앙일보 상무 겸 대기자를 초청, '한국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란 주제의 대담을 가졌다.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신임 회장은 대담 직전 인사말을 통해 "대한언론인회는 현역 언론 후배들과의 교류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원로 언론인들의 최대언론단체로서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적극 헌신토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같은 취지의 첫 시도로 "조용중 원로선배와 중앙일보 논설주관을 지내고 대기자로 재직 중인 김진국 후배 언론인을 초청, 한국언론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조용중 원로는 "지금 우리 언론계 내부에서 벌써부터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해 오면서도 무책임하게 보이는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언론위기의 요인으로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함께 저널리즘의 확고하고 투철해

긴급 대담

趙庸中

- 전 연합통신 사장
- 전 서울신문·경향신문편집국장
-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金鎮國

- 중앙일보 상무 겸 대기자
- 전 관훈클럽 총무

때: 2014년 2월17일

곳: 서울중구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사회: 文明浩 (본회 주필)

정리: 崔熙助 (본보편집위원·세종대석좌교수)

사진: 李哲永 (본보편집위원)



‘한국언론의 위기상황’에 관해 대담하는 조용중 원로회우(왼쪽)와 김진국 대기자.

2·3면에 대담내용 지상중계

야 할 가치관 퇴색과 사명감 저하를 들었다.

김진국 대기자도 미디어 기업의 재정 상태 악화와 기자들의 프로페셔널리즘 부족이 언론위기의 근본 요인이라 진단했다. 그 결과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미디어 수용자들의 신뢰도 추락, 기자들의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저하 및 다른 직종으로의 높은 이직률, 언론매체와 언론인 상호간의 불통과 불신 등의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조용중 원로는 "언론의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며 "기자들은 취재과정에서부터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가에 대한 검증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부조리는 저널리즘 자체의 힘으로 교정하고 치유하는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조용중, 김진국 두 선후배 언론인은 언론도 국가이익에 직접 결부되는 경우에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원칙적으로 국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관련, 기존의 오프 라인 미디어, 특히 종이신문은 온 라인 매체의 등장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저널리즘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환경변화에서 오는 언론위기가 기자나 언론 미디어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본문]

발행인 편지

大韓言論 正論펴기 동참합시다

大言을 향한 회우들 의견 수렴 ... 3월 20일까지 동봉한 앙케트 응답 기다립니다

오늘 여기 백지 한 장을 내놓습니다. 이 백지는 회원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大韓言論'이 1977년 세상에 나와 사회의 향도로, 나침반으로 정론을 펴 온지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 집행부 출발점에서 내일을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大韓言論'은 그 동안 열렬한 박수 속에 때로는 쓴 소리도 들어 왔습니다.

"줄기찬 논지 곳곳에 좋다, 과녁이 확실해 좋다"

"논단이 많고 너무 무겁다, 볼거리가 별로다" 호불호도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제자리에 서있느

나. 정위치는 어디냐"고 자문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언론조차도 평가르기 공방의 종착역이 오리 무중인 오늘, 여론의 침병으로 신문 방송에서 산전수전을 겪어온 우리 6백 회우들이 정답을 고뇌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大韓言論'이 합창으로 '大言'을 외칠 때입니다.

'大韓言論'이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더 다들으려 합니다. 올림 큰 정론(正論)미디어, 기다리며 찾는 미디어, 볼만 하다는 미디어로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시각(視角)이 뚜렷한 저널, 정보가 있는 매거

진, 회원 소식이 가득한 페이퍼로 거듭나려면 회우님들의 고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봉한 <별지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회우님 모두가 편집인이며 발행인의 위치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새봄이 오면 '大韓言論'은 새옷 입고 회원님께 문안 드리겠습니다.

大韓言論 편집·발행인 金銀九 올림

■ 긴급대담 — 위기의 한국언론 진단

경영악화 - 기자 사명감 저하 극복을

문명호 조금 전에 김은구 신임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말한 것처럼 대한언론인회는 앞으로 현역 언론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소통을 활성화 하면서 선배로서 후배 언론인들을 향해 조언과 비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의 테마는 ‘한국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입니다. 사회이념 갈등을 언론이 부추기는 건 아닌가, 사회적 화합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다하는가, 기자들의 의식과 사명감은 살아 있는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치유책은 무엇인가, 한국언론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생존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려고합니다.

위기관 등장 20년 넘어 ... 갈수록 증폭

김진국 언론의 위기를 현직 기자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언론위기는 크게 보면 기자들의 문제가 하나 있고, 여러 가지 기술발달에 따른 미디어 매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돼 상황을 악화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직기자로써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언론인으로서의 기자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중 신문의 위기, 언론의 위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아니 20년이 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런데 언론의 위기관 얘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심지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2020 몇 년이 되면 미국 신문의 경우 2, 3개 정도 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란 엄정한 경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전히 같은 차원의 신문위기관, 매체문제, 기자의 문제, 또는 신뢰도의 문제를 갖고 다 같이 신문위기, 언론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저널리스트는 지금 언론위기관 하는 것은 기자들이 사명감을 잃고 동시에 저널리즘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이 줄어든 게 오히려 신문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칼럼을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에 공감하면서도 그런 세계적인 흐름하고 또 우리는 차원이 다른 위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한국언론 또는 한국신문 얘기를 하면서 지적하는 현상의 하나가 언론이 진영논리에 파묻혀서 어느 편만 대변한다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현상의 일면이지, 전체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도 봅니다. 다만 그것이 최근 10년 안팎 사이에 심각해졌으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영논리에 매몰됐다고 하는 게 우리 언론의 위기만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문제는 아까 인용한 미국 언론학자가 얘기하는 사명감 부족으로 거기에 더 공감합니다. 우리 언론계는 언론위기관 하면서도 무책임하게 나아가고 있는 걸 보다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저널리즘이나, 저널리즘을 위해 공헌할 게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위기에 빠진 저널리즘을 부활하고 융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인가에 대한 언론의 사명감이 모자란다는 점입니다.

언론사 끼리 담쌓고 선배 존경도 안해

김진국 신문이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을 진영논리에 매몰됐다고 질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주장을 뛰어 넘어서 사실보도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하느냐,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보도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자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상당히 눈조가 다른 타사의 기자들이나 선배들에게도 존경심을 표시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

러 가지 시대변화도 있지만 지금은 각 언론사가 담을 쌓은 듯 지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관훈클럽에서 ‘기자사회의 벽을 허물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기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도 물론 거기서 큰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정신의 부족을 지적하셨지만 저도 공감합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지금 신문을 비롯, 여러 가지 미디어의 재정상태 악화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미국의 신문 시장변화



조용중 원로회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룩된 지금 언론의 목표 잃어 버린듯

진영논리에 매몰됐다고보다 저널리즘의 진정한 가치 추구안해

보이는 뉴스 파고들어가 새로운 뉴스 생산하는 노력 필요”

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뉴저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기자 한 사람이 오프라인 신문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도 수시로 기사를 공급해야 하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노동강도는 굉장히 강해졌는데 보수는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기자수는 부족해 지고 기사 출고량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허겁지겁하면서 기사를 양산하는 데만 바빴지, 기자들이 정말 기자정신을 갖고 어떤 사안을 깊이 있게 추적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추적 보도하는 게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했던 환경과 달리 지금 우리 언론계 후배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서 후배들만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후배들의 기자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이 희박해 지는 걸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나가는 인터넷 매체 타산지석으로

조용중 사명감에 대해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그렇게 여러 매체에 여러 가지를 취재하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나,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무엇이나에 대해 그렇게 의식을 투철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위기관 하는 현상으로까지 온 게 아니냐, 그것은 첫째, 경영 측면에서 신문이나 언론 자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경영체제가 못 되는 것, 기자 수가 줄고 미국에서처럼 인수합병 현상이 일어나고 더구나 워싱턴 포스트가 외부에 팔려 나가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새로 등장하는 인터넷 매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두 인터넷 매체 같은 건 신문 이상 가는 영향력으로 많은 블로거를 거느려서 좋은 칼럼을 쓰고 풀리처 상을 받는 데까지 발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꼭 우리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의 위기, 신문의 위기관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죠.

김대중 정부이후 정보의 권위 사라져

김진국 아까 언론의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요,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 예를 들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에 대해 여러 토론이 학자들 사이에 있었지만,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가 바뀌고 야당에게도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 주요 기관의 어떤 판단이나 정보가 권위를 인정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여야가 각각 권위의 중심을 자처하면서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들어서면서 기존 권위를 거의 파괴해 버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의도가 있건 없건 거기에서 나온 정보의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몇% 정도는 인정해 놓고 토론이 시작됐어야 하는데 기존의 모든 권위에 대해 파괴해 버리는 바람에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민사회등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 사회 전체가 어떤 토론의 최소한의 기초라 할까, 기반이 없어져 버려 토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언론이 지역적 사회적통합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매체들도 각자 나름대로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캠페인 같은 기사를 내놓기는 하는데 그게 다 각자 자기 기준에서의 통합 노력이나 어쩌다 세팅을 해서 내놓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토론만 반복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미디어 재정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가 넘어갈 정도로 세계적 골지의 어떤 미디어 기업도 인터넷 기업에 비하면 아주 푼돈으로 매입이 가능한 열악한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언론계 내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기사를 잘 쓰고 어떤 탐사보도를 잘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 이외의 요소, 즉 광고영업이나 다른 사업에서의 능력이 더 중요시 되는 언론계 내부의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도 자극적 노출 등으로 독자를 끌어 들인다든지, 상업주의적 문제나 아니면 편가르기로 독자를 끌어들이고 이념상업주의라 할까요, 그런 걸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결국은 어떤 상업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자 주장이 분명하긴 해야 하지만 팩트를 전달해야 하는 기본적인 언론으로서의 신뢰도, 이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만이 위기의 원인 아니다

조용중 저널리즘이 무엇이나에 대해선 사람과 시대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불변의 진리 하나는 저널리즘은 대중영합의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 상업주의다, 무어다 하지만 결국은 대중영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저널리즘의 큰 속성이 아니냐,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대와 계층을 통틀어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차츰 차츰 희박해 지고 있는 게 아

3면으로 이어집니다.

■ 긴급대담 — 위기의 한국언론 진단

사실 검증 충실 - 국익 저해 없어야

2면에서 이어집니다.

닝가, 그래서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저널리즘의 숭고한 가치라는 건 정치민주화를 추구하면 다 용서 받는 그런 게 저널리즘의 사명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룩된 뒤에 지금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치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건 저널리즘 사회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따라서 그 바닥에 흐르는 저널리즘의 본령과 사명을 추구 탐색해 나가는 게 큰 작업으로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오프라인 매체는 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온 라인 매체의 등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실은 그 온 라인 매체가 저렇게 폭발적 힘을 갖고 등장한 그 자체는 오프 라인 매체가 자초한 것이다. 가령 아까 미국의 인터넷 매체를 예로 들어서 얘기했지만, 흥미있게 보는 건 몇 년 전부터 폴리처상도 받는 그런 온 라인 매체가 생겼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아주 선구적이고 도전적인 인물들입니다.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의 애리어나 허핑턴(Arianna Huffington)이라는 그리스 출신 여성의 성공담 같은 건 미국사회니까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도전 정신을 갖고 담비는 매체들이 우리는 아직 없는 게 아닌가, 사명감이나 일상화 돼 버린 위기의식, 그런 걸 조금 정리해 나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현업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들이나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않나, 특히 경영 측면의 위기의식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니까요, 동네구멍 가게에서 요새 신문을 살 수가 없거든요.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해결하니까, 그런 현상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프라인 콘텐츠 제값 못받아

김진국 온 라인과 오프 라인은 대결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수단의 변화의 문제이지, 이 자체가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온 라인은 기자들이 만든 원초적 콘텐츠를 전달하는 새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잘 연구하고 활용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열린 것이라고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온 라인 문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문제는 기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업만의 문제도 아닌 전체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온 라인이란 새로운 환경의 등장이 지금 당장 기존의 오프 라인 매체들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이유로 초기에 언론계에서 잘 못 대응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오프 라인 기자들이 만든 기사 콘텐츠를 제 값을 받고 인터넷 수용자들에게 전달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료로 배포하면서 자기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잘못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나 언론단체, 미디어를 발행하는 언론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등이 함께 나서서 건전한 뉴스가 계속 재생산되고 그것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이나 국내에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널리즘의 비즈니스 모델의 프레임은 다시 짜야 한다고 합니다. 기자 입장에서 좀 더 뒷붙이고 싶은 것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온 라인 인터넷 웹 문제나 모바일 앱이 등장 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전달수단이 바뀜으로써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공하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요즘 환경변화를 생각하면 콘텐츠

내용이 점점 독자들이 읽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독자들에게는 훨씬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가미하면서 뉴스전달을 독자들이나 수용자들이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가공하고 독자 친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토요일자 신문 심층보도 긍정적

조용중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기사의 형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변화로 토요일 자에 가령 장문의 특집 형식인데 실은 심층탐사보도가 나오지



김진국 대기자.

“...기자 수는 줄고 출고량은 많고
끈질긴 추적보도 기자정신 퇴색취재보다 광고영업 중시하는
언론 내부환경 개선 필요온라인매체 등장 기회로 이용
새로운 기사 작성체제 필요”

않습니다. 지금 거의 큰 신문에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종래의 신문에서 기대했거나 신문에 익숙했던 독자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대단히 큰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그것이 신문의 변화라 할까, 신문의 스토리텔링의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모험과 시도라고 보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령 일상적 뉴스보다도 그런 식의 탐사보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50대 기자가 10회에 걸친 장문의 기사로 폴리처상을 받았습니니다. 뉴스도 아닌 전쟁 부상자 얘기를 갖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뉴스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뉴스를 파고 들어가서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는 식의 보도, 예를 들면 최근에 러시아의 소치에서 열렸던 동계 올림픽과 관련돼 일어난 일이지만 스케이트 선수인 안현수의 얘기는 또 다른 뉴스도 되고 사회의 어떤 한 측면을 파헤치는 훌륭한 탐사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널리즘이 빠진 함정이 무어나 하면 에피소드나 그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기사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사라고 하면 그날 뉴스라야 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슈를 파헤치는 저널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서 저널리즘의 사명감과 본 바탕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직 만족” 답변 45%에 불과

김진국 지금 언론의 경영환경이 워낙 좋지 않나 보니까 기자들에게 두 가지가 힘들어 보입니다. 얼마 전

까지는 기자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익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 직업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평가를 잘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기자들의 의식조사한 걸 보면 기자직에 만족한다는 대답이 45% 정도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직을 생각하는 기자들이 소속 언론사마다 상당히 많고 지방지까지 포함하면 최근에 와서 충격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는 무엇인가 하는 항목에서 같은 뉴스를 보도했을 때 신뢰하는 매체는 TV 73%, 인터넷 17.9%, 종이신문 7.2%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 가면서 내 옆에 꼭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종이신문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 있어요. 신뢰문제로 보면 뉴욕타임스가 1910년대 전쟁보도를 객관적으로 했다는 평가로 폴리처상을 처음 받았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 왔지만 그거 신문에 났더라 하면 주위에서 토론하던 사람들도 아, 그게 맞다며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요즘 온갖 헛소문이 난무하는 인터넷보다도 종이신문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언론 부조리는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조용중 객관보도, 사실보도의 검증이 절대 필요합니다. 취재하면서도 검증의 정신으로 취재해야 하고 그것이 사실에 충실한 보도인가,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가에 대한 본인의 검증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저널리즘의 함정에 빠진다면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김진국 미디어환경이 바뀌어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고 보도 미디어가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이 무엇인가, 기자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이나, 했지만 저널리즘 기자들의 프로정신에 대한 대답은 신뢰문제가 아닌가. 그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미디어로서 보도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는 독자들의 신뢰여야 한다는 거죠. 대선배의 지적처럼 사실검증과 진실을 끝까지 추구해서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기자의 프로페셔널리즘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중 언론부조리를 어떻게 교정하고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선 신통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시장에 맡긴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구요. 시장이 언제 바로 잡아주고 시장이 또 그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권력이 개입한다? 권력은 얼싸 좋다 하겠지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결국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건 저널리즘 자체의 힘입니다. 저널리즘이 꾸준한 기회 있을 때마다 구석구석 뒤져서 그런 걸 파헤치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정도라고 봅니다.

김진국 언론과 국가간의 측면에서는 외교안보 보도에 있어서 걱정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속보경쟁에 매달리다 보면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문제는 언론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용중 외교관도 숙련공이어야 하지만 외교안보문제를 다루는 기자들도 숙련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런 건 언론에서 배려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이북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를 보도의 한계로 잡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문명호 장시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북한 인권법 더이상 미루지 말라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발언을 계기로 통일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얼마전 국회교섭단체연설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주요과제로 선정해 여당과 협의를 거쳐 회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소극적, 정확히 말해 회피적 자세를 보이던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장성택의 무자비한 처형으로 드러난 처참한 북한인권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또한 그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보수화경향을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공당(公黨)으로서 모른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가혹한 고문과 처형등 북한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삶을 방관해 왔다. 우리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미국은 벌써 11년전 북한인권단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도 9년전 납치자문제처리에 중점을 둔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유엔인권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 그때부터 북한인권문제는 매년 주요 관심 사항이 되었고 그 격 또한 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 총회로 높아졌다. 투표방식도 과거의 찬반투표에서 작년부터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를 만들어 매년 북한인권실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작년엔 유엔인권위산하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라는 정식기구를 만들었다. 인권조사위원회는 올해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북한 국가기관들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반체제인사·탈북 시도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와 외국인 납치는 반(反)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수령(김정은)과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등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다. 유엔이 북한 ‘반인도 범죄자’들의 형사 처벌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유엔이 국민보호책임제(responsibility to protect)를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국민보호책임제란 해당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유엔이 나서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안이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안보리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동의해 줄 가능성은 낮지만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유엔의 움직임은 북한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준호

·본회 논설위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민주당 태도변화

公黨으로서 당연

말로만 안 끝나야

유엔인권위 보고서

북한에 엄청난 압박

우리도 공조 마땅

인권이념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프랑스는 북한과의 수교 전제조건으로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우리정부는 유엔의 이같은 노력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 김대중정부나 노무현 정부때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채택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우리가 공동제안국이 된 것은 그나마 이명박정부때의 일이다.

북한인권에 대해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처럼 알레르기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온정주의, 친북, 종북파들의 적극적 북한감싸기등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도 여기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규약중 B규약)에 방점을 둔 북한 인권개선노력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만 악화시킬뿐이며 정책효과도 미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노동금지, 무차별투옥, 강제낙태, 수용소인권침해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당국자들의 반발만 살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설립, 인권단체지원, 기록보존소설치등을 골자로하는 새누리당의 법안을 반대하고 지원센터설립과 식량, 약품지원을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 명칭이 ‘북한인권법’이 아니고 굳이 ‘민생’을 집어 넣어 ‘북한인권민생법’이라고 하는데서도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인권이 갖고 있는 보편성원칙은 남의 눈치를 보거나 양보할 성질이 아니다. 국제규범으로 확립된 원칙이다. 과거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개선결의안 표결에서 우리가 불참이나 기권으로 북한을 불편하게 할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적 상황, 북한의 대남인식등 다른 변수가 훨씬 크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북한이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식량지원등 경제적 지원도 과거 독일처럼 인권과 연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단순히 ‘민생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퍼주기 논란만 키웠던 햇볕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

김한길대표의 말이 단순히 수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뒤늦었지만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뒷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주민들이 “당신들은 우리가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무얼 했느냐”고 물을 때 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4]

황반변성은?

가끔 지하철 등 계단에서 목격하는 일인데 노인은 물론 장년층도 발을 헛디뎈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골절상을 입는다. 이들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계단을 제대로 보고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발을 헛디뎠다면서 근래들어 물건들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언덕의 높낮이가 구분이 잘 안 됐다고 한다. 안과에서는 이런 증상을 ‘황반변성’이라고 진단한다.

황반변성은 시력저하로 시작해 시야의 왜곡 현상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 정도가 되고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되는 질병인데도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황반변성이란?

눈에는 카메라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얇은 신경 조직인 망막이 있다.

건강정보

눈의 노화와 황반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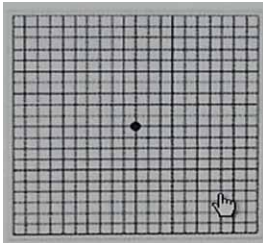


그림 1
정상인의 자가진단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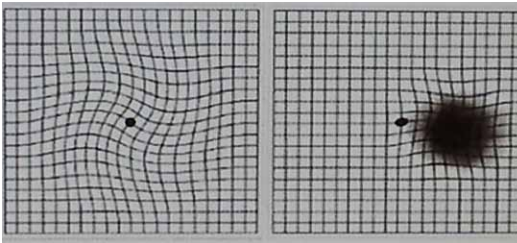


그림 2
황반변성에 걸린 소견.

망막의 중심을 ‘황반’이라 하는데 이 ‘황반’을 통해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황반’에 여러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력이 떨어지고, 보고자 하는 부위가 잘 안 보이는 것인데 이를 ‘황반변성’이라 한다.

그러나 ‘황반변성’이 온다고 해서 시야 전체가 캄캄하게 되어 암흑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고자 하는 부

분이 어둡거나 왜곡되어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황반변성’은 노화와 특히 흡연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황반변성의 증상은?

초기에 직선이 굽어보이고 글자가 흔들려 보이며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글자의 공백이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며 군데군데 검은 점이 생기고 중심인 시

야가 까맣게 변한다. 시력감소와 함께 중심암점, 변시증(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등이 나타난다.

‘황반변성’으로 일단 시력장애가 시작되면 이전의 건강한 시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즉 완치가 어려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황반변성 치료는?

약물과 주사, 레이저 등으로 치료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법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황반변성의 예방은?

망막기능이 감소돼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떨어져 완치가 어려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평소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신경을 쓰면 예방이 가능하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빨리 도입하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2월3일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추진은 이날 김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특권방지 법안(가칭 ‘의원특권 내려 놓기 법’)에 포함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거론해 왔지만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상임위서 1년 6개월째 잠자고 있어

역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서 지난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14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발의했지만 1년6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입법화하지 못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지난해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채택, 당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과제로 들어 있다. 최종보고서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 등 30가지 과제가 담겨 있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기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이다. 리콜(Recall)이라고도 하는데 불량제품을 회수해서 교환이나 수리, 보상을 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가리키는 리콜과 같은 낱말이다. 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띤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베네수엘라 등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국내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주요한 선거법 개정안 중 하나로 이 제도가 도입돼 법제화 됐다. 미 연방법에서는 소환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요 주들의 주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2006년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소환 대상이다.

국회의원만 제재 장치 없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제에 의해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퇴출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뽑아 주었지만 잘 못하면 주민들에 의해 쫓겨 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선출직 중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은 유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제재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른 선출직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원만이 예외일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투표를 통해 정치권력 행사를 위임한 국민은 그 국회의원을 제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첫째 이유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지난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2007년7월1일부터 발효함으로써 시행되기 시작했다. 주민소환제 시행을 위한 법제화 과정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민소환제를 법제화한 이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는 투표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투표를 미달로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세종대 석좌교수

1심판결 불구

이석기 의원직유지

언제까지 두고보나

정략적 악용소지불구

운용만 잘하면

장점 살릴 수 있어

무산됐다. 지금까지 주민투표가 발의된 사유를 보면 해당지역에서 다수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토목사업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실행했다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사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한데 2007년 광역 화장장 건립에 앞장선 경기도 하남시 시의원 2명이 주민소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시흥시장, 하남시장, 제주도지사 등이 소환투표에 부쳐졌지만, 투표를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절실한 이유는 또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단 선출이 되면 아무리 비리, 독선, 전횡을 하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독단,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민소환제도이다. 한국의 현실도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된1995년 이후 임기 중 비리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1기 23명, 2기 59명, 3기 78명, 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속이 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사퇴를 하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이 보류되는 등 지방행정이 파행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주민소환을 통해 기존의 지자체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3심까지 가면 임기 거의 끝나

이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가운데 문제되는 경우는 오히려 지자체 쪽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위원의 경우에서 보듯 내란 음모 혐의등의 죄목으로 1심에서 12년의 선고가 내려졌는데 3심까지 가려면 의원 임기가 거의 끝나야 의원직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자고 민주당을 졸라대지만 1심 판결을 보고 처리하자던 민주당이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더 지켜보자며 탄정을 부리는 바람에 참으로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의기관에서 벌어지는 이런 해괴한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극좌 독재체재를 꿈꾸던 사이비 국민대표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인데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국민이 나서서 금배지를 떼어내는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모를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 국민소환제가 물론 만능은 아니다. 국민소환제는 취지면에서 타당한 제도이지만 시행측면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도가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어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운용여하에 따라선 충분히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 대표가 국민소환제 실시를 들고 나온 정치적 배경을 따지는 일은 그리 중요치 않다. 그보다는 이번이야말로 과연 실시 의지와 관철할 자신을 갖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쇄신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볼 일이다. 이 문제를 두고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허탈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국회]

4면에서 이어집니다.

1.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선 선글라스를 쓰며 전자기기의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항상 50분 사용 후 10분 휴식을 지킨다. 2.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삼간다. 시신경의 혈류 순환을 방해 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3. 인스턴트 음식

이나 고 콜레스톨 음식 자제. 4. 등푸른 생선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블루베리)이나 야채를 즐겨 먹는 것이 좋다. 5. 일주일에 5회 하루 1시간 이상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이 좋다.

황반변성의 자가진단법

이 ‘암스리지 격자’ 그림을 보자. 원

편그림1은 정상인의 경우이고 오른쪽그림2는 황반변성에 걸렸을때 보이는 그림이다.

본인이 사용하는 근거리용 안경을 쓰고 밝은 빛 아래서 33cm 정도 거리에서 격자를 본다. 이때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의 중심점을 본다. 반대쪽 눈도 똑 같은 방법으로 본다. 이때 격자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맹점 등이 보이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자. 건강한 눈을 가지려면 예방과 함께 1년에 한번 정도의 검진이 중요하다. [국회]

주: 이 글은 본회 건강포럼에서 강의했던 김지택 안과 전문의의 도움으로 작성한 것임.

이보길 편집위원

올림픽 메달의 두얼굴 바로 보자

■論壇■



고두현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체육부장

엘리트 스포츠정책

학업은 뒷전에 밀려

선수들 앞날 망칠수도

메달 숫자와

국민체력은 무관

현실직시 대책마련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지도(認知度)를 높이기 위해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힘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에는 동·하계 두 올림픽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의 2연패를 이룩한 이상화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의 감투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국제경기 특히 올림픽에서의 승전보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 따라서 엘리트 스포츠 육성은 국민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현재의 스포츠·체육정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스포츠만 잘하면 학업을 소홀히 해도 대학을 나올 수 있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선수의 앞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과가 우리의 체육이 잘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체력도 강하다는 착각을 갖게 만든다는 점이다.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된 메달리스트들

외국 특히 스포츠왕국인 미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보면 선수생활 은퇴 후 그들의 직업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1968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의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테레이 올브라이트는 은퇴 후 학업을 계속해 명문 하버드의대를 나와 외과의사로 이름을 떨쳤다. 흑인 최초의 여자 피겨 세계챔피언인 미국의 데비 토마스는 1988년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정형외과 전문의로 성공했다. 1980년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관왕인 미국의 에릭 하이든도 은퇴 후 의과대학을 나와 스포츠의학의 중진으로 꼽히게 됐다. 1948년, 1952년 두 차례의 올림픽에서 연거푸 남자 하이다이빙의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계 미국인 새미 리(李)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됐다. 1972년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프랭크 쇼터는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1976년 올림픽 여자 조정경기의 동메달리스트인 미국의 아니타 데프란츠는 IOC 부위원장까지 지낸 인물로 박사학위를 지닌 변호사다. 백인 경찰관들의 흑인 용의자 구타로 유명했던 로드니 킹 사건의 재심담당 존 데이비스 판사는 1952년 올림픽 수영 남자 평영 200m의 금메달리스트다. 우리의 수많은 올림픽메달리스트들 가운데는 어쩌서 학업과 스포츠를 훌륭히 양립시킨 인물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학업성적 떨어지면 스포츠 활동금지

1982년 아시안게임 여자수영 3관왕인 최윤희는 고교시절 미국에 수영유학을 갔었다. 최윤희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이 떨어지면 스포츠를 아무리 잘해도 경기대회에 내보내지 않고 방과후에 훈련도 금지해서 학업성적이 올라가야만 스포츠활동 금지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다. NCAA(미국대학경기연맹)는 일정수준의 학점을 따지 못한 학생에게는 대학경기 출전을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과 함께 수영강국으로 꼽혔던 호주에서 10대 초반의 소녀가 세계신기록을 세우자 그 소녀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세계신기록 수립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수영 때문에 학업성적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장 수영을 그만 두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학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한도 안에서 학생선수는 스포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칙을 외면해왔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선수의 장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도 스포츠계나 교육계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우리의 체육특기자 제도는 한마디로 학업을 충실히 안해도 스포츠만 잘하면 대학을 졸업할수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IOC위원이며 스포츠와 체육에 뛰어난 철학을 지니고 있던 고 이상백박사(전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학업을 소홀히 하기 쉬운 학생선수들에게 체육특기자 제도는 본인의 장래에 바람직하지 못할뿐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의 지적(知的)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짙다”고 강력히 반대했으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도 학생선수들에게 학업과 스포츠를 양립시킬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제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 때가 왔다고 여겨진다.

청소년 체력향상 정부정책 필요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올림픽에서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은 1955년 치러진 크라우스 웨버 체력테스트로 미국청소년의 체력이 유럽 여러나라 청소년의 체력보다 훨씬 뒤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큰 충격을 받는다. 올림픽에서 차지한 그 많은 메달이 나라의 기동인 청소년의 체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 미국정부는 서둘러 다음해인 1956년 대통령 직속으로 청소년체력자문위원회를 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관계전문가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하면서 미국 청소년들의 체력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각급학교의 체육을 충실히 하도록 힘쓰고 체력강화를 위한 홍보책자도 발간 했다. 대통령 직속 청소년체력자문위원회는 국민체력자문위원회로 발전했고 대통령이 갈려도 대를 이어 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을 발휘해나갔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체력자문위원회가 발간한 ‘미국 체력만들기’라는 홍보책자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었다. 간추려본다. “지금까지 나는 기회 있을때 마다 아이들에게 활발한 신체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해왔고 부모들에게도 학교체육프로그램 계획을 지지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근력이나 지구력을 강화할수 있는 기회를 보다 자주 주도록 요청 해왔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기개와 힘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 하게 된다. 국가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집합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의 힘, 에너지, 창조력은 국민의 총화(總和)를 넘어설 수는 없다.”

어쩌서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체력을 챙기려 하는 것일까? 막강한 무력으로 세계질서와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미국이 최신 무기를 지니고도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만 쓰라린 경험이 국민체력강화에 힘쓰게 된 배경이라는 관측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무력도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도 올림픽메달이 결코 국민체력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냉엄한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체력강화를 위한 새로운 스포츠, 체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회우들이 펴낸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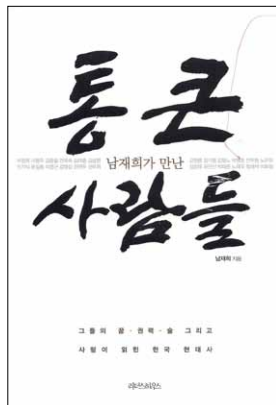
남재희 회우 ‘통큰 사람들’

‘남재희가 만난 통큰 사람들’이 출간되었다. -그들의 꿈, 술, 그리고 사랑이 얹힌 한국현대사-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남재희 회우(서울신문 편집국장, 국회의원·노동부장관 역임)가 신문기자 20년의 취재대상이었던 역대 대통령과 정치활동20년에 만났던 인물들의 면모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식인’의 안목과 필치로 엮어냈다.

단 19페이지에 8인의 대통령을 “스쳐가는 인연-옆에서 본 한국의 현대사”로 그려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학생때 초청된 자리에서 만났던 이

승만 대통령은 “신령같았다”고 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용감한 아파치 추장같다”는 비유를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검승부를 하는 검객같다”고 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팀워크와 돌파력의 화끈한 성격”을,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나와는 맹물같은 관계였지만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라는 선거구호를 김학준박사와 만들어줬었다”고 회고했다. 또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타고 난 싸움꾼’으로 비유하면서 “막강한 대권은 누가 주는게 아니라 쟁취하는것 이라는 논리를 펴 드렸었다”고 했다. 김대중



이 문제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평균적인 인간이 대통령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록 성격의 페이지에서는 ▲사쿠라 소리들던 스피크스, 유진산 ▲가인 김병로옹과 그 손자 김종인 ▲항상 어렵

대통령에게는 “한국의 빌리브란트가 되시라”고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투철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으나 경험부족

다는 김성곤, 잘된다는 장기영 ▲정치출세학의 정석 따른 신범식 ▲김종필·박준규 두 거물의 대화 ▲삼국지 장수같은 정래혁 ▲간간하고 경우 밝은 이재형 ▲일본의 과벌정치 모방한 김윤환 ▲강철계의 박대준 ▲원칙 내세워 풍파 일으킨 대쪽 이회창 등의 에피소드도 그렸다.

저자는 본격적인 인물 전개에서 언론인 천관우 선우휘, 문화계 이병주 박맹호 전옥숙, 정치인 김상현 윤길중 김정례, 군인으로 정치인이었던 민기식 그리고 강원통목사, 이영근(재일 통일일보 발행인)등 열한분의 모습을 예리한 필치로 그려내고있다.

〈리더스 하우스 발행·14,500원〉

‘동해 명칭 되찾기’ 모두 나설때다

■論壇■



문명호

·본회 주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美주의회 법안채택 계기

국제적 推力

살려나가야

미국의 해양파워 막강

민간단체-매스컴등

적극 캠페인 필요

미국의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일본의 치열한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한국의 바다 동해(East Sea)명칭을 일본해 (Sea of Japan)와 함께 공립학교 교과서에 쓰도록 하는 병기 법안이 지난 2월 채택됐다. 미국의 50개 주중 동부지역 일부 주의 법안 채택이지만 지금 이 영향은 교민들이 많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지역으로 파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넘어 유럽지역 교민사회도 각 지역에서 동해 병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뉴욕주 교민들과 주 상하원 의원들은 힘을 합쳐 오는 5월 통과를 목표로 동해 병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척 고무적인 움직임이다.

美교과서등 ‘일본해’로만 표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미국 주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 채택 기회와 주력(momentum)을 미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 왜 고무적인 일일까? 현재 미국은 교과서는 물론 해도, 항공지도, 군사용 작전지도등 모든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 (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한 지역 한 명칭’이라는 미국지명이사회(U.S. Board on Geographic Names)가 정한 표준 명칭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지명위원회가 정한 동해해역의 표준 명칭은 ‘일본해’다. 울릉도 속초 금강산 앞바다가 일본해로 되어 있는 것이다.

동해가 기원전부터 수 천 년간 한민족의 바다인 것은 국내 외의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헌들이 실증하고 있고 동해는 한민족의 역사 지리 문화 예술 습속등 생활 전반에 녹아져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지도는 16세기 중국에 온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일본해를 그려 넣은 세계지도 ‘곤여만국전도’ (1602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이 난데없이 일본해로 바뀐 배경은 일제가 한국을 병탄해 통치하고 있던 1929년, 세계의 바다 명칭을 정하는 모나코 국제수로기구(IHO)회의에서 일본이 동해 해역을 통틀어 일본해로 표기한다는 제안을 했고 IHO가 이를 받아들인 때문이다. 당시 외교권등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한국은 IHO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한국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명칭을 빼앗긴 동해는 일본해 속에 병탄, 모든 국제 지도상에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유엔가입 이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와 국제수로기구회의에 정부, 학자등 민간 대표를 파견, 동해 명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근거와 일제시 일본해로의 병탄을 들어 이 해역의 동해 표기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 주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동해 단독 표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은 전략을 바꾸어 동해/일본해 병기안을 내세웠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와 IHO는 두 개 이상 국가가 공유하는 지역의 지명은 관련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각의 지명을 병기토록 하고 있다.

국제지도제작 원칙도 같다. 한 예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협도 영국 명칭인 ‘더 잉글리시 채널’과 프랑스 명칭인 ‘라 만슈’로 병기하고 있다. 필자도 정부대표와 전문학자등 민간 대표의 일원으로 유엔지명표준화회의와 국제 세미나등

에 참석, 일본이 한국의 주장을 막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을 현장에서 겪은바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까지 늘리고 있다.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전은 국력의 경쟁과 같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정부와 동해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등 민간 기구의 노력으로 몇 년 전부터 오스트리아에서 동해, 일본해 병기를 하고 있으며 지난 1997년부터 미국, 프랑스등의 우수한 민간 세계지도 제작사들도 병기를 하고 있다.

일본의 극심한 반발-로비 경계해야

그렇다면 왜 미국의 동해 병기가 중요한 것일까? 한마디로 유엔등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큰 영향력 때문이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영국등 타 국가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등 해양에서의 파워는 세계의 어느 국가도 비견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하다. 사실상 미국은 세계의 해양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이 최근 군사력등 해양력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번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캠페인이 확산된다면 멀고도 험난한 길이지만 미 연방 의회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동해 병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인단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ice of Korean Americans)는 미 전국 50개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병기와 미 정부, 특히 국무부의 공식 입장을 병기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은 이 동해병기 캠페인이 일본의 더욱 극심한 반발과 로비, 그리고 일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미국내에서 불거지게 하는 반작용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의회 조사국의 미·일관계 보고서에 동해 병기와 함께 독도도 Dokdo/Takeshima로 병기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2월 “한국측 동해 병기는 쓸데없는 혼란만 일으킬 것”이란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있으며 뉴욕 일본 총영사는 동해병기 반대 공한을 뉴욕 주의회에 보내고 있다. 미국내 일본의 로비는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전술 전략등 전방위적 대처가 시급하다.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법안은 정부의 외교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지 교민들의 열의와 단합된 힘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동안 동해 문제 국제회의 때 마다 몇몇 매체를 빼놓고는 국내 매스컴의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에 모두가 실망스러워 했다.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을 되찾는 것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동해 병기안이 2012년 총회에 이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국제수로기구 다음 번 총회가 2017년에 열리게 되며 올해도 유엔지명표준화회의등 국제회의들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우리 바다, 동해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민간단체, 특히 매스컴들은 빼앗긴 동해 명칭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미국등 해외 교민들이 불을 댕긴 동해 병기 캠페인을 적극 성원, 이 주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 [W]

회우들이 펴낸 신간

강한필 회우 ‘사랑’

경향신문 편집국장, 불교방송사장을 거쳐 30여 년을 언론계에 몸담아 온 강한필 본회 이사가 최근 난소암 환자였던 아내를 떠나보내기 전 6년간의 암 투병기를 모아 ‘사랑’이란 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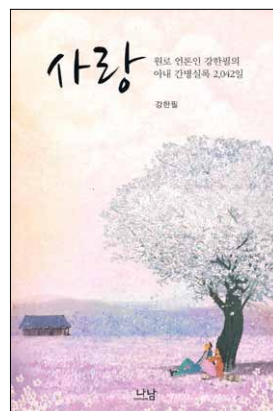
저자의 아내 고 정복숙 씨는 5년 7개월간 난소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다. 저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기 위해 아내의 간병일기를 써내려갔다.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하루 24시간 아내 곁을 지키며 간병일기를 씀으로써

아내가 쾌차할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다 한다.

이 간병일기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사랑, 쾌유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로 빼곡하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 과정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 정신없어 그날 기록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기억해 일기에 담았다. 저자에게 일기는 하루 일상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기도에 가까웠다.

저자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을 잔잔하고도 뜨겁게 보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사랑을 모두 표현하는 기간이었기에 슬프고도 괴로운 암 투병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참된 사랑은 정신과 육신의 세계를

항 암 주사와 여러 시술들, 수없이 반복되는 입·퇴원 속에서 부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이별까지의 시간

뛰어넘어 영혼의 세계에서 맺어지는 신성한 것이기에 거룩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극치에 도달하기 어렵다했다.

사랑처럼 깊고 복잡하며 신비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이다.

이 책은 또한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황혼 부부의 로맨스 스토리로 심금을 울린다. 특히 투병 중인 암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는 위안을 주는 필독서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있다. [W]

〈나남출판사·국판 532쪽·18,500원〉

‘김용판 무죄’싸고 사법부 비판 공방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축소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법장 청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신문들은 증거주의 법리를 중시한 재판부를 옹호하는 논조와 일선 수사책임자 증언의 배척을 비판하는 논조로 엇갈렸다. 대다수 신문들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법권 침해로 반헌법적이다’ (문화일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세계일보), ‘성급한 일이다’ (동아일보), ‘무죄가 정치공방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라고 상급심을 기다릴 것을 촉구하면서 특검에 반대했다.

중앙은 2월8일 사설에서 “재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 여론의 영향에 좌우된다면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 기능의 심장으로서 판사들은 물론이고 법원, 나아가 전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문제다. 판결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판부를 미화하거나 비하한다면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여지는 좁아지게 된다. 더욱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 중인 상황 아닌가. 진영논리의 색안경을 쓰고 무죄나, 유죄나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성도 버릴 때가 됐다”고 정치권의 재판 압박 행태를 꾸짖었다. 문화는 7일 사설 ‘김용판 무죄는 증거재판주의에 합당한 귀결이다’에서 “예상대로 민주당 등은 ‘진실 모욕’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수사 방해 탓’이라며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반 헌법적이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특검을 실시한 전례도 없다. 상소절차를 벗어나 법 밖에서 불복을 획책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민주당이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것도 성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8일 사설에서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권력 폭주’라고 했다.

증거재판주의 판결에 야권이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특별검사에 의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으니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런 식이면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정치권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다.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을 뒤흔드는 행태는 중지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친야 여론조사로 ‘당락 바뀐다’ 주장
좌파지들은 야당 대신에 재판부를 비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허위사실 발표로 대선 당락에 영향을 미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기교 사법’의 전형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난하면서 단 한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경찰 수사발표가 대선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했다. 대선 투표

결과와 반전 여부를 친노 계열에 의뢰한 것부터 정치적이며 설득력이 약하다. 국정원 트위터 사건의 본질은 트위터의 대선 영향력이다. 국정원이 운영

적으로 확인된 허위수사 발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 발표와는 달리 범죄 의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든다.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고 썼다.

‘정권 퇴진’ ‘판사 위협’ 지나치다

우파지들 중에선 증거재판주의를 평가했으나 검찰의 수사 미흡을 비판하기도 했다. 동아는 7일 사설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면서까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권은희 씨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가 조목조목 지적인 무죄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의 기소에 일부 무리한 점이 나타난다. 검찰은 최근 저축은행 사건의 무죄 판결 등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원세훈 무죄면 정권 퇴진하라는 민주, 법원 위협하나’ 사설에서 “사법부 판결에 왜 행정부가 퇴진해야 한다는 것인지 언뜻 납득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서도 ‘국민 법 감정과 정의의 원칙은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증거를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A4 용지 107쪽인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찰이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한 사람의 증언만 믿고 기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조목조목 드러나 있다. 누구든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정당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치 법원이 불의한 것처럼 비난한다거나 ‘무죄 나면 정권 퇴진 운동 벌인다’고 판사를 위협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적 안정성은 민주주의의 보루다. 김용판 무죄를 비판하는 정당이나 언론이 사법부 위의 존재가 아니다. 판결이 상식이려면 법원은 필요 없다. 신문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되도록 목청을 더 높여야 한다. 야당은 9억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사건을 놓고 1심 무죄 때 ‘정치 검찰’, ‘검찰의 굴욕’이라더니 2심 징역 2년 선고 때 ‘정치 재판’이라고 사법부를 모욕했다. [4]

다수신문 “정치적판결 아니다” 논조 한겨레 “대선영향” 단정적사실 문제

판했다. 한겨레는 7일 ‘거짓과 진실이 뒤바뀐 김용판 무죄 판결’이라는 극단적 제목의 사설에서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권은희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은 믿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지지 댓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경찰들과 김 전 청장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적잖다”고 비판했다. 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작년 11월 유권자 2,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중 97%가 ‘당시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한 트위터 계정이 몇 개이고 생산한 선거 영향적 글이 각 계정의 팔로어 몇 명에게 전송되었고 투표에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 계량하기 위해선 먼저 대선 투표에 트위터를 이용한 유권자에 국한해 물어봐야 합리적이다. 검찰조차 이런 본질적인 트위터의 계량화 분석을 놓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갈팡질팡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트위터가 뭔지도 모르는 유권자들까지 포함시켜 대선 투표 반전여부를 물은 것은 선정적이다. 조사대상은 지역, 연령, 성별 등에서 모집단의 득표 행태와 일치해야 하는데 이 조사는 휴대폰으로만 이뤄졌으며 대선후보 중 누구를 찍었는지 피조사자의 말을 빼곤 검증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겨레는 이런 중대한 대선 결과의 반전에 관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당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단정적 사실을 쓰는데 신중했어야 했다. 한겨레가 유독 국정원 여직원의 실명을 계속 공개하는 것도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7일 사설에서 “재판부가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과정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듯이 결과

2014 시산제 초대합니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새해를 맞아 올 한해의 안전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25일 갖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산제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2013년 3월 25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불광역(지하철 3호선·6호선 2번 출구)
- 산제장소: 북한산 향로봉 기슭
- 산행코스: 산제 후 북한산 둘레길 7구간 산행
- 문의전화: 010-7276-6211(정운중 회장)
010-2691-0084(나용경 총무)

*시산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우는 오찬 장소인 통나무집(02-356-5533 불광 1동)으로 당일 오후 1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통나무집은 불광역 1번 출구로 나와 구기터널 쪽으로 약 10분 거리. 북한산 생태공원 골목 용화사 입구)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토요건강포럼’ 개강

겨우내 쉬었던 ‘토요건강포럼’이 새봄을 맞아 다시 문을 엽니다. 이제 ‘토요건강포럼’도 개강 7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3월 주제: ‘노후 성기능장애 고칠 수 있다’

개최일시: 3월15일 (토) 오후 2시

장 소: 명동 이윤수 병원 홀(외환은행 본점 앞)

담당자: 이보길 편집위원 / 010-4461-5657

뉴스내용과 틀린 자막 방영 거슬러

올해도 연초부터 대형 뉴스가 쏟아져 온 나라를 휘몰아 쳤고 이 뉴스를 전해야 하는 신문, 방송인들을 바쁘게 했다.

3년 반만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상봉 당사자는 물론 온 국민이 상봉의 기쁨과 안타까움, 기약 없는 헤어짐의 아픔으로 분단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연이은 기름유출사고와 화학회사 공장의 화재에 더해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장을 덮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는 국민에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적인 사고 공화국이란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4년을 기다려 온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인의 환희와 감동을 함께 맞볼 수 있었고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과 승리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다.

큰 뉴스와 쇼킹한 사건사고에 늘 부딪쳐온 탓인지 오랫동안 준비해온 동계올림픽은 물론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에도 언론은 긴밀하게 대처해 정확한 상황 보도와 원인 분석 등 대체로 보도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큰 뉴스를 다룸에 있어 사소한 잘못이 뉴스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있어온 것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쏟아지는 대형 뉴스 속에 작은 티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방송은 소치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이 소치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하게 해설을 곁들여 보도했다.

신문도 박스 기사로 다루는 등 각 매체는 이 뉴스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주요 기사로 다룬 만큼 사소한 잘못으로 기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만큼 뉴스 제작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혹 첫 뉴스에서 잘못이 있으면 다음 뉴스에서 즉각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북한 불참사유 정확히 보도

KBS는 2월 6일 9시 뉴스에서 이 소식을 ‘이슈 앤 뉴스’란 특별 섹션에서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수 년 동안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에서 올림픽 참가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록을 내지 못해 이번 소치올림픽에 단 한 종목도 참가할 수 없게 됐고 특히 IOC의 특별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따 내지 못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더불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국가체육위원회란 강력한 스포츠 정책 추진조직까지 만들어 범국가적으로 스포츠 진흥을 추진한다고 선전했어도 실제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스포츠가 후퇴해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성택의 처형 이후 일상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 체육활동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처럼 역도 등 각종 스포츠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전했다.

특히 이 뉴스에서 기자들은 북한이

비록 올림픽에 선수단을 참가시키지는 못했어도 경기 내용은 중계하겠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아시아방송연맹이 중계권까지 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국가체육위원회를 만들어 체육활동을 장려한다고 했지만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부진한 체육활동으로 당분간 국제 스포츠계에서 고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상세하게 전했다.

이 두 꼭지의 상세 보도를 보면 북한이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위는 물론 올림픽 참가 무산을 아쉬워하고 있는 속내까지 자세하고 정확

방송시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크, 방송국 내외의 모니터 모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슈 앤 뉴스’라는 특별 코너를 통해 중요 뉴스임을 강조하고 또 충실하고 정확한 기사와 해설까지 곁들인 좋은 뉴스의 내용과 정 반대의 뉘앙스를 풍기는 잘못된 제목으로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제작자는 물론 관계자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재미있고 지식도 쌓을 수 있어

재미도 있고 지식도 쌓아갈 수 있는, 시청을 권장해도 좋을 방송 프로그램이

다음날 아침까지도 수정않고 방영 KBS ‘역사저널 그날’ 시청 권할만

하게 전한 뉴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기자들의 리포트 내용과는 전혀 상치되는 제목이 뉴스 내용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슈 앤 뉴스’란 특별코너에 붙은 자막에는 “북, 12년 만에 불참 고립 불가피”라는 제목이 유난히 크게 붙어 있었다. 뉴스 내용에서는 북한이 IOC의 특별 지원까지 있었음에도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내지 못해 소치 올림픽에서 배제됐다고 했는데 제목에서는 북한이 올림픽에 불참했다고 해 마치 북한이 소치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 했다는 인식을 주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했고 나아가 뉴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다.

불참의 사전적 의미는 “참석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음(동아 새국어사전)”이라고 되어 있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다.

흔히 정치적 이유 등으로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는데 이때 우리는 대회 보이콧 또는 불참이란 말을 썼었다.(참고로 이 잘못된 제목은 신문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

필자는 이 뉴스의 정확한 제목은 “북, 12년 만에 참가 못해”라거나 “12년 만에 탈락”, 또는 “12년만에 배제”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부정확한 아니 틀린 제목이 이후 뉴스 시간에도 계속 방송 돼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까지 그대로 나갔다는 사실이다.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관계자들과 전문 모니터들이 지켜봤을 터인데 아무도 이를 발견해 시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더구나 이 잘못된 제목이 반복해서 방송된 것은 리포트한 기자나 담당 데스크, 편집자와 편집 데스크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역사저널 그날’ 이 바로 시청을 권할만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난 해 10월 26일 “정조, 죄인의 아들, 왕이 되다”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난 23일 18번째로 “1430년 조선, 첫 국민투표 하던 날”까지 역사적 터닝 포인트가 된 날을 정해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상은 물론 일반 서민의 생활과 의식, 행동에 이르기까지 사실(史實)을 전하면서 올바른 해석을 곁들이는 프로그램이다.

최윤경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건국대 신병주 교수와 시인 류근씨, 영화감독

독 이해영씨가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과서 안에서조차 왜곡되고 멋대로 해석되는 우리 역사를 우리 곁으로 끌어내 재미있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본다.

신 교수는 학문적 바탕으로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으로, 류근 시인과 이해영 감독은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엉뚱하게 토해내는 주입새로 이 프로그램을 시청자 앞에 끌어들이고 있다.

신재국 책임 프로듀서와 이재국 PD가 프로그램의 제작을 맡고 있는 ‘역사저널, 그날’에 대해 ‘역사와 이야기의 만남’을 주제로 “우리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가 바뀐 결정적 하루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로 전개된다. 역사가 숨죽인 터닝 포인트인 ‘결정적 하루’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교양과 재미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그날의 주연과 조연은 누구였으며 그 당시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고 오늘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본격적인 토크 쇼가 KBS가 밝힌 제작 의의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한 두 사람의 시청 소감을 소개해 본다.

어떤 가정주부는 “역사를 이렇게 재미있게 다룬 프로그램은 처음이라면서 일요일 밤 10시 30분 늦은 시간에 방송이 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아쉽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다뤄지리라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조선의 역사만 다뤄온 것에 대해 일부 성급한 시청자는 우리의 역사가 조선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5천년 도도히 이어온 역사의 지평을 넓혀 우리 역사를 통사적으로 고루 다뤄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오래간만에 부담 없이 느긋하게 기대앉아 재미를 느끼며 귀중한 역사 지식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자신 있게 시청을 권해본다. [본문]

사우회 소식

사우회보 50호 특집호 발행

경향신문 경향사우회(회장 김명수)는 지난 1월 24일자로 사우회보 50호 특집호를 발간했다. 타블로이드 32면 컬러로 제작된 이번 호는 경향사우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지면과 다채로운 편집으로 사우회의 저력을 과시했다.

초대회장 김경래(본회 원로회우)의 ‘새해 화두’, ‘경향이 일군 천재 이어령의 전설’, ‘명 편집국장 열전’(홍보 염상섭 편),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의 ‘나의 소공동 시절’, ‘잊을 수 없는 경향인 차건성 이사’, ‘특유의 기자 끈기 보여준 CEO 이원창 한국방송공사 사장’(본회 회우), 선후배 사회부장 대담 ‘강한필(본회 이사)·최병준(경향 사

회부장)’ 등이 돋보인다.

2014년도 사우회 예산 4억여 원

KBS KBS사우회(회장·정근춘)는 1월 17일 열린 제 34차 이사회에서 4억 860만 원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으로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청주 춘천 지회장도 참석한 이사회에서 201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2013년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다 약 6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1일자 KBS 사우회보 제142호에 보도된바 있다.

KBS사우회는 2월 27일 오전 11시 KBS 신관 라디오홀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윗 사람이 잘해야” … 3대가 함께 행복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8〉

회우초대석

금강산에서 이뤄진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즈음해서 이종기 회우의 자택을 방문했다. 3대 7식구가 한 집에 사신다는 말씀을 듣고 인터뷰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 회우는 청진이 고향이다. 1·4 후퇴 때 홀로 남하해 파란의 세월을 지냈다. 고생도 했고 성공도 했으나 언제나 잊혀 지지 않는 것이 고향이다.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님과 돌아가셨을 어머니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때는 어렸던 두 동생의 모습이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천마산 꼭대기에 있던 청진 제2중학시절이 그림고 옛 동무들 모습도 아른거립니다”라는 이 회우에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는 소감을 물었다.

“이산가족 상봉신청 했지만…”

“이번에 저도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가족을 만날 기회는 이미 늦었고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생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카들 만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부모님과 형제들의 산소와 제삿날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 회우에게 남다른 생각들을 떠오르게 한다. 기자시절 13년간 판문점을 출입하면서 동향(同鄕) 출신의 북한 기자를 만나 고향 소식을 귀동냥 하던 시절이 있었고 1990년 10월에는 북한 땅 평양을 방문하는 뜻 깊은 일도 있었다. 제2차 남북고위(총리) 회담의 평양 취재단 명단에 서울신문 이종기 사진부 부국장이 들어 있었다.

남북고위회담을 취재하고 귀환한 이 회우는 그 때 일을 사진기자회보에 실었다. 그 글의 일부를 요약해서 옮긴다.

〈판문점에서 가족의 소식을 전해주던 북한 기자를 평양의 만찬장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고향에 계셔 만날 수 없고 평양에 있는 동생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귀뜸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 기자 편에 가지고 간 선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평양 체류 3박 4일 동안 낮에는 여러 가지 스케줄에 맞추고 취재와 전송을 하느라고 여유가 없었지만 밤이 되면 마음은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대신 가까이 있다는 동생이라도 만났으면…

서울로 돌아오는 날 평양역에 도착한 내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뭐냐고 묻자 동생의 선물이라며 저쪽을 손가락질 해 보였다. 역 근처 건물 2층 창에서 마구 손을 흔드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동생이었다. 순간 자제력을 잃고 뛰어가려 하자. 주변에서 만류했다. “기차를 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차는 평양을 떠났다.

“아” 어머니! 당신은 알고나 계신지요. 제 가슴이 이리도 고통스러운데 당신의 아픔은 얼마나 크실지…제발 오래 살아 계십시오. 도저히 이대로 마지막 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북대화를 취재하면서 대화해서 뭘 하나 하는 회의를 느끼기도 했었다는

이 회우는 이 글의 말미에서 “남북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아무 소득이 없을지라도 자주 왕래하다보면 언젠가는 아주 조금이라도 트일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향사람 연줄로 돈벌어 공부

이 회우는 청진에서 양복점을 경영하던 부모님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6·25 한국전쟁 때 18살로 고등학생이었는데 북진한 3사단 18연대의 군노무자로 일하다가 1·4후퇴로 청진에서 철수할 때 LSD를 타고 월남했다. 다음 달인 2월에 부산에서 육군 신호나팔수 모집에 합격, 육군본부 군악학교 졸업, 육군본부 군악대 3년 복무, 1954년에 제대의 병역을 쌓았다.

-군 제대 후에 어떻게 자리를 잡으셨나요

“제대할 때 21살이었어요. 잠깐 막막했는데 고향 청진에서 피난 온 분들이 여러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포목점을 하고 계셨습니다. 청진이란 연줄로 포목상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던 아이들의 집을 돌아가며 밥도 얻어먹고 잠도 얻어 자구요. 그러면서 손수레에 원단을 싣고 가게와 창고를 오가는 일도 했



3대가 함께 모여살자면 ‘윗사람이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종기 회우.

北進한 국군부대 따라 혼자 월남 … 90년 평양갔을때 동 대학때 사진공부 한 우물만 파 … 마나슬루 원정 - 北洋

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신임도 얻었고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되신 거예요.

“자리를 잡고 보니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사진관을 하시던 고향 분을 만나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사진 공부를 시작했구요. 한양대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을 마치면서 대한일보의 전신인 평화신문 사진부 기자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59년이었습니다.”

-기자가 되니까 어떠하셨어요.

“날아 갈 것 같았습니다. 이전 직장도 생겼고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지요. 그 뒤로 대한일보 기자, 경향신문 기자, 서울신문기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진 기자로 관록을 쌓았습니다.”

-취재하신 일들 중 기억에 남는 것들을 간추려 주시면?

“히말라야의 마나슬루 원정대 취재. 북양 감차가 근해 명태잡이 조업. 월남 종군 취재 등이 생각납니다.”

-마나슬루 원정대의 히말라야 등반 취재기부터 말씀해…

“서울신문이 1971년에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金祐燮, 金祺燮 형

제를 비롯한 6명의 등반대원과 사진기자인 저를 포함한 서울신문 마나슬루 원정대는 예년에 보기 힘든 악천후를 뚫고 두 번 세 번 전진 후퇴를 계속하다가 8,156m의 정상 350m 앞두고 김기섭 대원이 총알처럼 강한 바람에 휘말려 크레바스에 빠져 한국인으로서는 첫 희생이란 사고로 이어졌어요. 정상을 앞두고 발생한 끔찍한 사태였습니다.”

이 회우는 한 묶음의 신문철을 보여주었다. 사고 소식은 물론이고 절경과 눈보라와 「억겁의 비경」이라고 표현한 화면들이 새삼 경이로운 장관이었고 이회우가 직접 쓴 「세계의 지붕 네팔 비경」이란 연속 르포 기사와 사진 설명의 문장들이 필자를 압도했다. 이걸 언제 다 보고 무엇이 라고 정리해야 하나 겁이 나기도 했다.

-보여주신 1977년 2월28일자 서울신문의 머리기사 타이틀이 「蘇水域 조업 韓國漁船 撤收」였고 「本社 李鍾基 특파원, 第52大辰號서 急電」이란 부제가 붙어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종기 특파원 사진도 함께 나왔네요.

“대림 수산의 배려로 52 대진호(5,054t)에 승선해서 북양 감차가 근



한집에 사는 이종기 회우 가족 7명이 함께했다.



마나슬루 원정대를 취재 보도할 당시 서울신문지면

한 대가족 이끈다

李鍾基

· 전 서울신문 부국장겸 사진부장
· 한국 사진기자 협회 14,15대 회장

인터뷰 : 글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사진 =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해에서 명태잡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수산청으로부터 급전이 왔습니다. 소련의 2백해리 전관수역선포가 3월1일부터 발효되니 캄차카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남쪽으로 철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보를 받은 우리어선들은 만선의 꿈을 접고 황금 어장을 등져야 하는 통한에 발을 굴렀지요. 2월9일에 부산을 떠났고 본격적인 조업을 한창 시작한 26일에 급전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 회우는 촬영뿐만 아니라 기사 취재와 작성에도

3대에 7식구가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밝고 명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이회우의 가정은 부럽고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회우 부부와 가족들의 깊은 사랑과 끝없는 신뢰가 바탕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 공감이 간다.

경찰서 수사과장 조카딸과 결혼

-혈혈단신 월남한 총각기자가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요.

“경향신문사 수습기자였을 때 동대문경찰서를 출입했습니다. 수사과장이 말도 걸고 친절도 베풀고 하더니 어느 날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조카딸이라고 한 처녀를 소개 했고 그 처녀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 때 제 나이 28살이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1937년 생으로 이 회우보다 4살 아래인 김희숙 여사는 동대문서 수사과장이 이모부였고 일산의 갑부 집 딸이었습니다. 부인에게 질문을 했다.

-수습기자, 이종기 어디가 좋았습니까?

“별루였답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첫 인상은 그저 그랬는데 어른들이 좋다고 하셔서 그냥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복이에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낳고 그 애들이 모두 대학졸업하고 잘 살고 손자·손녀를 7명이나 두었으니, 그리고 지금도 모두 건강하니 이만한 복이 없지요.”

이 회우는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에 있는 우성아파트에 산다. 47평에 방 4개인데 이 회우 부부가 방 하나를 쓰고 아들 내외가 또 한 방을 쓴다. 그리고 손녀 둘이 한방을 쓰고 막내 손자가 방 하나를 독차지 하고 있다. 한 가족 7명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고 사진을 찍는 기회로 삼았다. 하나 같이 밝은 표정이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행복함을 진솔하게 보여 주었다. 중학교 3학년인 손자에게 심술 맞은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좋아요.

잠시 망설이던 손자의 대답이 신중하다. “두 분 다 좋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좋으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모든 걸 챙겨주셔서 좋아요. 밥도 해 주시고 여행 갈 때는 짐도 들어주시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도 데려다 주셨구요. 할머니는 음식도 다 해주시고... 현명하세요. 두 분 다 무지 무지 좋아요.”

이 회우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았다. 이 회우 부부가 아들부부와 손자·손녀들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이들을 귀히 여기고 나눠주고 보살펴주기 때문인 것이다. 집안에서 이 회우의 별명은 ‘모든 걸 다해 주는 할아버지’다. 아들이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②

오메가-3 지방산 뇌세포 손실 예방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생선지방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할수록 나이가 들어 생기는 뇌세포 손실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치매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돼 관심을 끈다.

최근 학술지 신경학(Neurology)지는 미국 남 다코

다 의대 내과학교실 포탈라(James Pottala) 교수의 오메가-3지방산과 뇌세포 손실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포탈라 교수는 나이든 여성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혈액세포 속의 오메가-3 지방산 수준을 측정하고 8년 후에 MRI를 통해 뇌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뇌 촬영을 할 당시 이들의 평균나이는 78세였다.

애초 혈액세포 속 오메가-3 지방산 수준을 측정할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두 배 더 많았던 사람들은 적었던 사람들에 비해 뇌 부피가 7%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뇌 세포의 손실을 1-2년 늦춘 것과 같은 결과에 해당된다고 했다.

오메가-3 지방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뇌 해마(hippocampus) 부위의 부피도 컸는데 이 부위는 기억력, 판단력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의 경우 특히 이 부위 부피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포탈라 교수는 아직 확실한 결

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뇌세포 손실을 막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는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했다.

전문가 보스턴 브리햄 부인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예방의학과 매슨(JoAnn

Manson)교수는 이번 연구만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라 평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한 기억력 검사 결과로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변화가 적은 뇌의 부피를 측정했다는 것과 연구대상자의 수가 많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전부 여성이어서 남녀를 함께 조사한 것보다 변화가 적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말 학술지 내과학지(Journal of Internal Medicine)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혈액-뇌 차단체계(blood-brain barrier)를 통과하여 뇌에 직접 작용, 알츠하이머치매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스웨덴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연구소 레비(Yvonne Freud-Levi) 박사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4]

생만 먼발치서 봐 어업 취재 못잊어



뛰어나 캄차카 근해서 철수한 뒤 이회우의 르포 기사가 당시 신문에 「사진으로 본 마지막 漁撈 이모저모」와 「두고 온 北洋」 등의 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회우가 보여준 옛날 신문에서 이종기 기자의 능력과 열성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기사취재 작성에도 뛰어난 역량

특히 사진을 곁들인 「두고 온 北洋」은 4월8일부터 25일까지 신문의 1면 박스 기사로 남아 신문 전체의 운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힘들고 어려운 취재 많이 하셨는데 월남 중군 때 이야기도 해 주셔야지요.

“맹호부대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베트공 들이 철조망으로 습격을 해왔어요. 맹호부대원들이 한 밤에 사격을 해대는 데 대단했어요. 날이 밝은 뒤 보니 철조망 따라 시체들이 즐비했던 정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수색하는 병사들을 따라 취재를 하는데 길 양쪽은 차들이 다녀 맨 흙이었지만 가운데는 풀이 꽤 자라있었는데 그 속에 숨어 있던 베트공을 내가 발견하고 체포하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베트남과의 외교와 교역 관계 등을 보면 느낌이 별나지요. 앞으로 두 나라가 정말 친하게 잘 지냈으면 합니다.”

결혼 하고나서 판 집 살림을 하다가 불편하다는 판단으로 함께 살기로 했는데 잘한 결정이었다고 이 회우는 스스로 평가한다. 남편이 국장으로 있는 ‘한국 아동미술’의 강사로 일하고 있는 며느리도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 두 분의 도움으로 직장 생활이 훨씬 더 원만하고 편한 면이 많다고 했다.

-시부모를 모시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저의 시어머님이 외동딸이세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부모님을 모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아이들의 사회성과 조심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구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키우는 것도 좋은 점이지요. 사랑이 많으시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러니 저희는 늘 고맙고 행복합니다.”

대학생인 큰 손녀에게 물었다.

-7식구가 함께 사는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장점은 언제나 허전하지 않고 시골벽적이고 활기찬 것이구요. 단점은요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하는 게

좀 그렇구요. 참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안 좋아요.”

가족함께 크루즈여행 즐겨

- 이 회우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신장이 안 좋았어요. 방광암으로 수술도 3번을 했구요. 그런데 요가를 한 것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성북구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3번 씩 요가를 하구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정릉 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아무런 이상도 없고 건강합니다.”

-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모임과 약속이 많아요. 한 달에 보름 정도는 모임이 있고 심심하면 더 만 들어요. 나이는 생각 안하고 삽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에 가능한 일 이기는 하겠지만 이 회우는 재작년에 딸네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고 올해도 사정이 있는 사람은 빼고 모두 데리고 크루즈 여행할 계획이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최고라는 칭찬을 들으며 행복하다는 이 회우의 행복 누리기 비법은 간단했다. “윗사람이 잘해야지요.” [4]

케네스 장 교수의 ‘백세를 사는 힘’은 부제가 ‘DEP 건강법과 인생의 질(quality)’로 되어 있다.

D는 식사(Diet), E는 운동(Exercise), P는 정신적 안정(Peace)이다. 책의 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표지 낱개의 광고문은 『DEP 세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일,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한 조건이며 ‘백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서양의학과 동양 의학을 통합한 합동의학(Integrative Medicine)과 장수의학(Anti-aging Medicine)의 최신연구로 DEP건강법의 노하우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고 적고있다』 연재를 1회 쉬는 바람에 매일 지나다니는 영풍문고에서 일본서적 여섯권을 사서 읽었다. 모두 건강정보를 나뉘는 기술(記述) 방법으로 엮어 놓은 것들이다. 여섯권중 다섯권의 책 제목이 된다. 대충 훑어보고 고르기야 하지만 뒤는 제목만큼 내용이 모두 유용한 것도 아니며 더구나 백세를 사는 힘이 되기도 어려우므로 추려서 재편집을 하게 된다. 앞으로 쓰는 글속에 모자이크 식으로 끼워 넣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책 제목은 『의사에게 죽지 않을 47가지 수칙』이다. 작년 2013년 한해에 100만부가 팔렸다는 베스트셀러다.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의 저자가 추천한 『의사에게 목숨을 맡기지 말라』다. 의사는 나뉘는 의료 기술을 습득한 기술자이긴 하지만 병을 완치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인생의 달인’(達人)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 책 제목은 『일일일식(一日一食), 안 먹는 비결을 가르친다』. 저자는 내가 여러권의 저서를 읽고 소장하고 있는 이시하라 유미(石原結實)교수다. 1948년 생인데 저서가 200권을 넘는 저술인이기도 하다. 나처럼 소식주의자에겐 반가운 정보다. 소식은 백수의 조건에 필수적으로 드는 요건이다. 어떤 먹거리를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DEP 건강법의 첫째 요건인 D의 전부다. 장수식에 관한 책은 열권도 더 읽었으므로 ‘일일일식’이 나에게 주는 정보는 한정적이다. 네 번째 책 제목은 『단식으로 암은 낫는다』다. 효소의료(酵素醫藥)의 일인자라는 주르미 다카후미(鶴見隆史)교수가 쓴 이 책은 단식으로 과연 암이 낫겠는가? 하는 의문부터 갖게 되지만 내용이 착실하다. 암에 대한 서양의료의 삼대(三大) 방법은 ‘수술과 방사선과 항암제’다. 그러나 이 세가지 암 치료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수없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의료계에 종사한적도, 연구를 한적도 없는 언론인 출신이므로 서양의료의 대들보처럼 내세우는 세가지 암치료 방법에 대해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 다만 그러한 ‘설’이 대체 의료계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명한 서양 의학자의 목소리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책은 『의사가 포기한 암과 싸우는 47가지 법칙』이다. ‘5년생존률 0%’라는 대장암을 극복하고 쓴 이 책에는 ‘암의 재발을 걱정하는 사람, 전이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꼭 읽어 달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내용은 비교적 착실하다. 47가지의 법칙은 이론이기보다는 생활수칙을 간명하게 추려서 적고 있다.

‘백수의 조건’에는 분명히 장수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백수자들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6>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百壽의 조건, 백세를 사는 힘 (下)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이 유전자에 의해서만 건강장수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는 탄생과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 유전자를 복권 타듯이 지닌 사람만 장수를 누리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장수 유전자를 타고 났다 하더라도 나쁜 생활습관을 지니고 있을 때 타이머는 중도에 멎게 된다. 생활습관이 장수 유전자 보다 먼저라는 이야기이다. 생활습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식습관이라는 사실은 여러번 강조해서 적은 바다. 수많은 건강정보를 책으로 읽은 결과 확인한 바다. 식습관은 먹성보다는 약간 적은 ‘소식’이 먼저고 그다음이 먹거리의 선택이다. 소식의 기준을 먹성의 80%로 주장하는 ‘설’이 태반이지만 70%로

제1장은 일본인 문필가가 쓰고 케네스 장은 2, 3, 4, 5장을 집필했는데 특이한 것은 ‘대가(代價)를 지불하라 (Pay the price)’라는 말을 여러번 되풀이 하고 있는 점이다. 대가는 의료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케네스 장이 첫째로 꼽는 장수의 덕목은 소식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장수는 일종의 마라톤 경주다. 마라톤에서 이기기 위해선 지속적이며 참을성을 가지고 인생을 통해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소식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식이되 어떤 먹거리를 먹을 것인가? 사람은 나이와 함께, 혈관과 함께 늙어서 죽는다. 혈관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먹거리와 운동의 힘이다. 암

무병장수의 키워드 DEP 건강법

이야기 하는 장수 학자도 있다. 나의 경우 76세때 사나운 손님처럼 찾아온 당뇨병을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력(自力)으로, 섭취 칼로리를 거의 50%로 줄이고 하루에 1만보씩 걷던 운동량을 2만보로 늘려서 6개월만에 기적적으로 당뇨병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있다. 당뇨병으로 진단했던 의사가 도저히 믿을수 없다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던 일을 나는 기분 좋게 기억하고 있다. 원래 식욕이 왕성해서 많이 먹기도 했지만 섭취 칼로리를 반으로 줄인 일은 용단인것 같기는 하지만 따라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물실험에서도 섭취 칼로리를 평균치보다 20~30% 줄이면 생식 능력이 왕성해져서 새끼를 많이 낳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20명의 백수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의 건강장수가 풍요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좀 모자라는 생활 환경속에서 내핍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백세를 사는 힘’에서 밝히고 있다. 1800년 말부터 1900년 초에 태어나서 자란 백수자들은 간소한 저지방 먹거리를 주식으로 삼았으며 걸어 다니는 것이 이동수단의 전부였던 자동차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 런던에서 보면 세계 3대 장수지역의 장수자들과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이 거의 같다. 공해가 없는 신선한 공기와 열을 처럼 차가운 바위틈의 청정수와 인스턴트 식품이나 건강을 망가뜨리는 ‘식품첨가물’이 들지 않은 신선한 식재(食材)는 건강장수를 보증하는 보편적인 것들이다.

케네스 장은 ‘백세를 사는 힘’의 저자로 적혀있지만 전 5장으로 된 책의

보다도 무섭다는 심혈관병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다. 비만증과 암과 심혈관병등 생활습관병에 무너져 가던 미국인의 건강생활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닉슨 대통령때 전력을 기울였던 ‘백가번 보고서’ 이후다. 피리미드형 ‘백가번 보고서’의 건강 먹거리의 삼각형 정상부에 마늘과 양배추, 콩, 생강, 당근, 셀러리등 미나리와 식물, 감초가 들어 있다. 이른바 디자인어 푸드이다. 정상부의 바로 아래층에 양파, 파, 전립(全粒)소맥, 아마(亞麻), 현미,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푸르트 등 감귤류와 토마토, 가지, 피망 등 가지과 식물, 그리고 브로콜리가 건강 먹거리의 대표선수로 꼽히고 있다.

‘백가번 보고서’는 『여러가지 만성병은 육식 중심의 잘못된 식생활이 가져온 것이어서 약으로 낫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육식에 의한 대량의 지방, 설탕, 염분이 심장병, 암, 뇌졸중 등 질병에 직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영양의 섭취방법, 식사 방법을 고치도록 경고하고 있다. ‘백가번 보고서’ 이후로 미국의 백수자가 불어나서 현재 50,000명을 헤아린다는 사실은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연구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케네스 장은 ‘백세를 사는 힘’에서 DEP건강법으로 심장 바이패스 수술이 필요없게 된 일을 식생활 개선의 실적사실로 적고 있다. 30년전에 10만달러라는 수술비와 장시간의 복잡한 수술이 필요했던 심장 바이패스 치료의 수술비가 4만 달러로 절감되는 바람에 가슴을 열어야 하는 수술이 유행처럼 퍼져서 폭발적으로 불어난 의료비에 비명을 올리던 미국정부가 콜로라도 대학에 연구비를 대고, 약 1,000명의

바이패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 1년간 DEP건강법을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60~70%의 환자가 수술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동맥 경화로 좁아진 혈관속이 넓어져 있음을 엑스선 검사로 확인할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먹거리에 의한 건강개선의 실적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고혈압도 그렇고 피가 굳어져서 혈관을 막음으로써 당사자를 쓰러뜨리는 혈전(血栓)도 먹거리의 개선에 의해 고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 먹거리의 선택과 섭취 칼로리를 줄임으로써 백수는 몰라도 건강장수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식습관, 곧 D의 다음은 운동 E이다. 나이와 함께 오는 노쇠는 근육이 줄어드는 데서 온다. 이시하라 유미 교수가 쓴 『병은 발로부터』의 서문은 ‘하반신의 근육이 쇠약해지고 엉덩이 살이 쪼그라드는 것이 만병(萬病)의 시작’이라고 적고 있다. 사람의 체중의 40% 이상이 근육이며 그 근육의 70% 이상이 하반신에 있는데 그 하반신의 근육이 줄어들고 엉덩이가 쪼그라 들면 갖가지 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당사자도 늙음을 자각하게 된다. 한마디로 운동이라 하지만 70세가 넘는 노인이 할수있는 가장 쉽고 적절한 운동은 걷는 일이다. 지속적인 걸음(보행)에 의해 갖가지 트집은 물론 뇌졸중과 심근경색도 막을수 있는데 배꼽아래 하반신이 유연하지 못할 때 ‘제하불인(臍下不仁)’이라고 한다. 70이 넘어 걸음이 부실한 사람들을 더러 볼 수 있다. 먹거리의 개선과 소식, 그리고 지속적인 보행에 의해 웬만큼의 건강은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내가 독서에 의한 건강정보의 수집에 앞서 강고한 의지로 여러 가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경험칙(經驗則)이기도 하다. 『병은 발로부터』의 제2장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만으로 일어나는 13가지 효용’인데 제목만으로도 유용한 정보임을 가늠할 수가 있다. 효용1은 근육세포의 비대증량(肥大增量)에 의한 기초대사(基礎代謝)의 촉진. 효용2, 심근(心筋)의 모세혈관의 수를 늘림으로써 협심증, 심근경색을 예방할수 있다. 효용3, 골량(骨量)을 늘려서 골조송증을 예방·개선한다. 효용4, 근육세포가 당을 잘 처리함으로써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효용5, 피속의 지방을 줄인다. 효용6, 비만의 개선. 효용7, 혈압의 개선. 효용8, 소화관이송(移送)시간의 단축(변비개선). 효용9, 울(우울증)상태의 개선. 효용10, 통증의 개선. 효용11, 암의 예방과 재발의 저지. 효용12, 기억력유지와 치매예방. 효용13,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오래산다.

운동의 효용은 그 이상 쓸것이 없겠다. 좌우지간 걷는다. 나의 건강수칙의 첫째다. 세 번째 정신건강 P는 비책(秘策)이 따로 없을 것 같다. 산업화시대의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라는 인간조직속에서의 성공자, 수치적 성공자, 객관적 성공자만 행복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지위도 낮고, 사회적인 명예를 받아본 적이 없는 노인이 노후건강을 누리고 배우자로부터는 애정을, 아이들로부터는 존경을, 친구로부터는 신뢰를 받을때 정신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궁리를 할 일이다. ㉠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해외여행패키지! 더~ 좋아지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쉽게
제공하겠습니다. 소비자와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더~ 행복한 여행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4년!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

참여
여행사

내일투어

노랑동선

redcap 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sejoong

위행박사

행복여행

투어 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한대여행

참여
기관

KATA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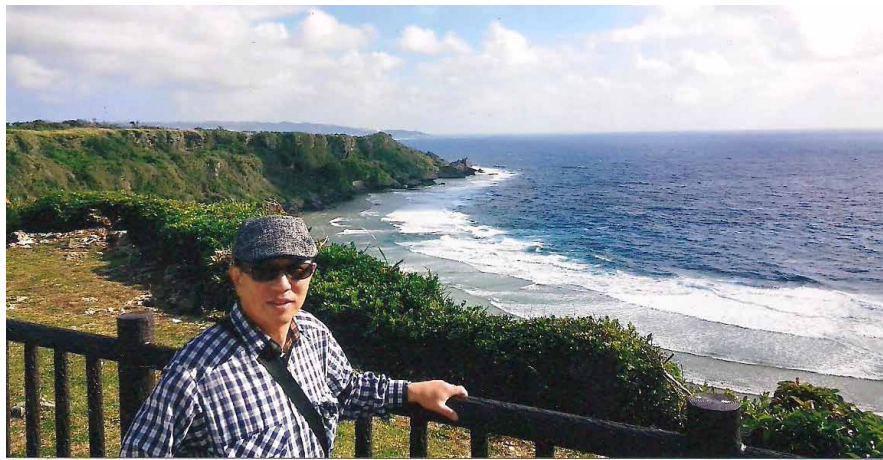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여행기

오키나와 마부니 언덕의 歷史상흔

이태영 (본회 상담역·추계예술대 법인이사)



오키나와 비운의 마부니 언덕에 선 필자.

새해 입춘도 지난 오늘 이 땅엔 매서운 칼바람만 휘몰아친다. 아직도 엄동설한의 한복판. 그러나 봄은 멀지 않은 곳에 와있을 터다. 60년의 장구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남과 북을 갈라놓은 냉엄한 철책도 이제 녹이 슬어 허물어질 때가 되었건만 진정한 해동(解冬)은 언제나 오려는지, 새 날, 새 땅의 기운과 에너지를 만들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좀 성급한 봄맞이를 위해 비운의 섬, 오키나와를 다녀왔다. 이번 역사기행은 청명한 하늘과 태평양의 기(氣)를 호흡하며 새날을 준비하는 시간, 또한 자연충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역사의 아픔을 씻는 치유(治癒)란 마음 속 깊은 성찰과 평화의 갈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오늘의 불행은 언제인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고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역사를 무시하면 역사로부터 보복당한다는 진리를 믿으려 한다. 또한 ‘역사는 역사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로 오늘 존재한다.’는 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오키나와의 슬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더구나 최근 역사의 과오를 잊은 일본정부의 우경화 폭주(暴走)로 세계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때여서 일본남단의 섬에서 느끼는 역사인식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처럼 태평양전쟁 최후의 격전지 오키나와는 아물지 않은 상흔(傷痕)으로 남아있지만 투명한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청정한 바다라는 천혜조건으로 보면 축복받은 땅이기도 하다.

지난날 스포츠 세계제전을 참관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삿포로와 나가노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연 히로시마를 돌아본 적이 있다. 특히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는 원폭피해의 아픈 역사와 함께 왜 평화가 소중한 것인지 되새겨 보았다. 오키나와 역시 그러한 비운의 섬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벌어진 태평양전쟁의 참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태평양에서 남·동지나해까지 그 넓은 바다는 근래에 와서 강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영일(寧日)이 없다.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먼 옛날 16세기 때 이미 중국에 복속되었던 류큐왕국의 실체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최후의 사령부가 있었다는 동굴 그리고 일본파괴를 앞두고 원주민 집단자살극, 미국점령 공군기지에서 일본에 넘겨진 과정 등 흥미했던 역사를

떠올리며 그 현장을 돌아보았다. 무엇보다 일제강제징용의 제물이 되었던 한국인의 혼백(魂魄)이 바람에 날리며 떠돌고 있는 듯 했다. 한국인전사자가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430명의 이름만 확인된 상태다. 이 가운데 한국적은 231명, 나머지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야기다. 이 역시 비극이다. 한국인 위령탑이 서 있는 섬의 남단 마부니 언덕에는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뒤엉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40년 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곳에 세워졌다는 한국인위령탑엔 영령들께 바치는 노래가 적혀 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이 지은 감동적인 시, 몇 구절을 옮겨 본다.

〈바라보면 조국은 원한의 먹구름/ 첩첩이 쌓이고 가린 천리만리/ 역사의 흙

탕물 폭포같이 쏟아질 적에/ 양떼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 바다 하늘 맞닿은 곳으로 끌려와/ 광풍에 생명의 등불 꺼지던 날/ (중략) 피를 머금은 저주의 원혼들/ 광풍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올라/ 불의의 가시덤불 활활 태우고/ 다시 밝아진 뜨거운 태양아래/ 눈부시게 영롱한 자유의 깃발/ 겨레의 얼은 영원한 것(후략)〉

옥빛인가, 에메랄드빛인가, 영롱한 바다와 저 투명한 하늘은 알고 있겠지. 파도를 향해 소리치며 바람에 물어본다. 〈하늘이시여, 민족의 그 슬픈 역사와 함께 외로운 영혼을 돌보아주소서.〉

나의 위령기도는 이것으로 끝날 수 없었다. 평화의 광장 돌무덤 틈새로 솟아나 바다바람에 흔들리는 한 생명, 이름 모를 나무를 보았기 때문이다. 위령탑에 새겨진 평화기념(祈念)의 뜻은 기구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가져간 돌들이 거대한 무덤을 덮고 있으니 그대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공원주변에서 본 히비스커스라는 이름의 새빨간 꽃송이는 우리의 무궁화를 그대로 닮았으니 배달의 후손들이 그대들의 혼을 지켜 주리라. 따뜻한 한겨울에 피는 칸자쿠라라는 벚꽃은 붉은 색을 자랑할 뿐 무궁화의 위엄과 끈기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언덕에서 저 꽃과 나무, 하늘의 새들은 증언하리라. 전쟁의 깊은 상처를- 그리고 제 나라를 잃어버린 채 독립을 갈망하는 이곳 섬사람들의 꿈을- 마부니 언덕의 바람은 말이 없으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듯 부드럽고 싱그럽다. [국문]

지난 8개월 동안 지하철 택배인생을 살았다. 500원의 귀중함, 감사, 친절, 소통, 건강의 중요성, 우주와 하나인 ‘나’, 이런 단어와 친해졌다. 이른바 ‘먹물’이 하층 인생인 택배 직업에 뛰어들기란 무척 주저된다. 하루 8~9시간 물건을 날라야 하는 육체노동을 견뎌야 할뿐 아니라 수입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월 얼마씩 벌어요.” 참으로 철없는 노인들이 가끔 내게 묻는다.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 보다는 낫겠네요.” 동정인지 야유인지 기가 막힌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 하는게 아닌가 싶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요.” 하는 질문과 다름없지 않은가.

현장에서 보면 택배기사들의 자존심은 대단하다. 물류소통에 일등 공신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기쁨을 줌으로 배달해 주기 때문이다. 물류 소통이 없다면 경제는 침체되고 말 것이다. 소통은 인간관계에서 더욱 중요하다. 리더십을 가진 국가지도자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풀려고 소통에 적극적인 때 국민은 행복을 느낀다.

물류 소통에는 81세와 84세의 노인, 전직교감, 30년 공직자, 대 건설회사 상무, 예비역 대령도 참여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수입보다는 노후에 일거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일반 직장에서는 직업인으로 받아주지 않는 신체 불편한 젊은이들도 상당수다.

일을 시작하기 전 주민등본을 들고 택배 회사를 찾아갔다. 간부와 면접을 끝낸 뒤 이를 동안 선임자를 따라다니면서 택배요령을 배웠다. 사흘째부터 단독 택배에 나서 9시간을 일하고 2만5,000원을 벌었다. 육체노동을 통해 돈을 벌기는 난생 처음이다.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나날이 경험이 쌓이면서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타는 법, 주소지의 지도 찾아가기, 백화점에서 파는 수백 가지 외국어로 된 브랜드 익히기 등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의외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윤재

·본회 회우
·전 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아뵤싸! 귀중품 2개를 들고 가다 지하철에서 한 개만 갖고 내린 것이다. 일을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이런 일이 생겼다. 물건을 못 찾으면 20만~3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 지하철을 탈 때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하는 회사 간부의 당부를 까먹은 것이다. 할레벌떡 지하철 승무원에게 연락해서 2시간 만에 겨우 물건을 되찾았다. 지하철 승객이 물건을 신고한 것이다. 오랜만에 살맛나는 세상을 경험했다.

500원이 얼마나 귀중한가도 실감했다. 점심값이 아까워 매일 1,000원 짜리 떡을 사다 먹었다.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식사 시간을 따로 낼 수도 없어서

지하철 안이나 길을 걸으면서 끼니를 해결한다. 생수는 필수 휴대품이다. 1,000원조차 아까워 350원짜리 생수를 사 마셨다. 물이 부족할 때는 화장실 물을 마셨다. 배송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서너 차례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경우가 많다. 무척 목이 마르다. 그럴 때 마시는 물 한 모금은 정말 달디달다.

택배를 하면서 여태까지 못 가본 서울 시내 곳곳의 특이한 풍경도 보았다. 사람 사는 곳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산동네를 비롯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옥마을, 분당, 의정부, 안산, 수원, 구리, 김포, 일산, 안양, 남양주, 하남시 등 서울 근교도 수없이 돌아봤다. 주소를 찾을 때는 젊은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핸드폰에 찍히는 주소지 지도를 읽을 때는 부근을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 자칫 전혀 반대방향으로 길을 잡은 적도 여러 번이다. 길을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세상에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곳, 더 나아가

15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人會 19대 집행부 출범... 운영규정 대폭손질

분과위원장등 위촉

대한언론인회 19대 회장단 집행부가 지난 2월 3일 신·구회장단의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으로 새로 출범했다. 김은구 회장은 우선 지난 13일 오전 10시 본회 사무실에서 취임 후 첫 이사회(제141차)를 소집했다.

김은구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김성배 정기정 감사를 비롯, 김충한 김태선 이형균 인보길 부회장과 강한필(위임) 고재혁 김경태 김영호 박우정 박용배 이병훈 이상호 정두진 정운중 정형수 최귀조 최신희 한중광 이사 등 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은구 회장은 회의 순서에 따라 의안을 상정, 먼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는 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정운중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상임이사 직을 겸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141차 이사회는 또한 지난 28차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금년도 예산안 중 일부 계수조정이 불가피한 부문 등을 실행예산에 반영했다.

금년도 예산은 대한언론인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과 김은구 회장이 약속한 몇 가지 신규사업집행에 따르는 소요예산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제시된 신규 사업 중 '퇴직언론인 실상센서스'는 상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기로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인터넷 신문 창간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젊은 회원 확충, 기금확충방안, 대외협력사업 확대(국제교류 등)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힘이 있고 일이 있고 정이 넘치는" 대한언론인회가 되도록 임원진이 앞장서 합심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141차 이사회는 특히 기존 운영규정을 새로운 사업수행에 맞게 대폭 개정하고 현 14개 분과위원회를



19대 집행부 첫 이사회가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1개 사업단과 9개 분과위원회로 재조정 했다.

총 13장 39조로 개정된 새 운영규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회 기능을 확대 조정하고 의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관장케 한다.

(2) 기존의 전문, 발전, 법규위원회를 통합, 기획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분과와 법제분과 간사를 둔다.

(3) 특별사업위원회를 사업단으로 승격, 홍보출판위원회와 발전기획위원회를 흡수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업단 내에 특별사업을 수행할 제1(사업개발), 제2(회원사업), 제3(대외협력), 제4(홍보·출판)위원회를 둔다

(4) 복지기금위원회와 후생복지위원회를 통합, 후생복지기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기금 담당 간사와 후생복지 담당간사(동호회 등 지원)를 둔다.

(5) 회보제작위원회를 신문제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논설주간을 신설한다.

(6) 사이버위원회에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을 담당할 간사를 두어 각각 업무를 분담케 한다.

(7) 6·25 참전언론인회 설립 근거 조항 신설.

(8) 사무총장 60세 정년 조항 폐지.

김은구 회장은 새 운영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5일자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했다. (괄호안은 전직)

▲ 원로위원회

위원장: 한영섭(KBS 방송인동우회 회장)

간 사: 이종기(서울신문 부국장)

▲ 자문위원회

의 장: 최서영(내외경제 코리아헤럴드 사장)

간 사: 이재원(정무장관실 1차관)

자문역: 김영수(MBC사장) 김해도(한국일보 논설위원) 김후란(문학의집 서울 이사장) 노철용(경향신문 사장) 신경식(국회의원) 윤상철(경향신문 주필) 이종식(국회의원) 이덕주(KBS 한국방송사업단 사장) 이종전(경향신문 논설위원)정광현(조광인쇄 사장)

▲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오건환(한국방송기자클럽 회

장)

기획분과 간사: 권영국(CBS 해설위원장)

법제분과 간사: 강병국(변호사)

▲ 사업단

단장: 함정훈(국민일보 전무이사)

제1(사업개발)위원장 단장 겸직

제2(회원사업)위원장: 이보길(KBS 해설위원)

제3(대외협력)위원장(추후 위촉)

제4(홍보·출판)위원장: 호천웅(KBS 청주총국장)

▲ 후생복지기금위원회

위원장: 김의수(내외경제 증권부장)

복지기금 간사: 정운중(상임이사·당연직)

후생복지 간사: 정회준(KBS 해설위원)

▲ 신문제작위원회

편집고문: 지용우(경향신문 논설실장)

주 필: 문명호(문화일보 논설주간)

편집위원장: 성낙오(영남일보 사장)

▲ 사이버위원회

위원장: 노상국(오라뉴스 대표이사)

간 사: 한중광(KBS 인터넷사장)

▲ 자격심사 위원회

위원장: 이창호(매일경제 편집부국장)

간 사: 최상목(동아일보 편집위원)

▲ 여성위원회

위원장: 신동식(서울신문 논설위원)

간 사: 박순신(한국교열기자협회 부회장)

▲ 행사집행위원회

위원장: 나용경(한국일보 교열부장)

간 사: 이용화(파이낸셜뉴스 편집위원) [4]

14면에서 이어집니다.

서는 우주 전체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나의 생명은 부지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리하여 '나는 우주와 하나'라는 결론을 얻는다.

팁도 받아봤다. 올 설을 며칠 남겨놓고 백화점에 물건 하나를 전해 주면서 2,5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직원이 3,000원을 내주면서 설이 다가왔으니 500원 거스름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밤 8시께 한 아파트에 여자 구두를 전하러 갔다. 배송료가 9,000원인데 1만원을 주면서 1,000원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또 고마웠다.

택배 일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은 허리를 다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었다.

지난 해 11월 20일 오전 7시쯤 배드민턴 하다 공중에 뜬 셔틀콕을 받아 치려다 발을 헛디더 뒤로 벌렁, 엉덩방아

를 찢고 뒷머리까지 땅에 심하게 부딪혔다. 순간 "큰 일 났구나!" 싶었다. 15분 동안 그대로 누워 있다 간신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다. 허리근육과 인대가 심하게 상했다. 보름동안 결근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택배를 했다. 배송물건이 어느 때는 15개 내외나 된다. 여기에 무거운 화장품이나 가전제품이 끼어들면 그 무게는 자그마치 30~40kg이 될 때도 있다. 물건을 어깨에 둘러매면 아픈 허리에 통증이 가중된다. 병원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하루에 15,000보 내외를 걷는다. 그동안 몸무게가 10kg이나 줄어 61kg이 됐다. 인생 후반에 참으로 특이한 경험을 했다. [4]

이효계 명예회우 별세

이효계(전 송실대 총장) 본회 명예 회우가 2월 27일 오후 1시 30분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 송실대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내각 기획통제관 심사관, 내무부새



마을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농림부장관, 한국토지공사 사장, 송실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소천하기 전 소망교회 원로장로로 봉사했다. [4]

언론가 소식

신문協, 인터넷판 'NIE 워크북' 배포

한국신문협회는 올해 개정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 맞춰 인터넷판 'NIE 워크북'을 만들어 배포한다. 협회는 "개정 사회과 교과서 내용과 순서에 맞춰 관련 신문기사 1~4개를 기사 형태 그대로 함께 수록해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NIE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워크북은 28일부터 협회 NIE 커뮤니티(www.pressnie.or.kr)를 통해 파일 형태로 무료로 제공된다. [4]

박권상 원로회우 별세

박권상 원로회우가 지난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1929년 10월 전북 부안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2년 합동통신기자로 언론계에 진출, 합동통신 기자, 세계통신 정치부장, 한국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 고문, 일민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KBS사장을 지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와 하버드대학원에서 수학했고, 영국 옥스퍼드대 세인트안토니스 칼리지 연구원과 미국 조지워



싱턴대 중소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지내는 등 국제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이사, 국제방송통신기구(IIC)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1957년 1월 공식 발족된 ‘관훈클럽’ 창립도 고인이 주도, 총무를 세 번 역임했다. 장례는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고인의 빈소에서 KBS 회장으로 치러졌다. 김은구 본회 회장은 이날 대한언론인회를 대표하여 추모사를 낭독했다. [4]

박권상 선생 영전에

윤양중(일민문화재단이사장)

1929년, 전북에서 태어나 2014년 2월 몹시 춥던 입춘에 별세한 박권상 선생은 향년 85세로 남자 평균 수명을 누렸으나 그 일생은 파란만장 하고 영욕이 교차한 것이었습니다. 하필 부인이 입원해 있을 때 자택에서 쓰러져 식탁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나서 초기에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단초가 되어 그뒤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분당 보바스 요양원, 서울대 분당병원, 서울 성모병원을 오가며 무려 3년8개월의 장기 투병에도 끝내 유언 한마디 못하고 운명 하였으니 수발을 든 미망인등의 노고를 짐작케 합니다. 장례는 KBS 사장(社葬)으로 엄수 되었고 많은 조객의 애도속에 장송되었습니다. 유해는 의식이 있을때의 고인의 유지에 따라 화장한후 안성근교의 한그루 소나무 아래 안장 되었습니다.

당신은 30년전 첫 저서 출판기념회 때, 신군부에 의해 동아일보를 강제로 그만 둘때를 회상, 28년에 걸친 현직 생활에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되었음을 돌아보고 한편으로는 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보람있는 삶’ 이었다고 회고 하였습니다. 대학을 마친 다음날 부터 취재기자로 뛰었고 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대리와 편집국장을 지낸 다음 런던으로 가 뒤 늦은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영향력이 큰 동아일보의 편집인겸 논설주간 까지 다채로운 현직을 편력했지만

결국은 타의로 신문사를 쫓겨 나야 했고 어지러운 현실에서 무엇인가 이상(理想)의 파랑새를 쫓아 헤매었다고 말한것을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언론은 자유와 명예 그리고 의무를 연결하는 꿈이었다고-. 돌이켜 보면 고인은 이때의 애환과 그뒤 KBS의 CEO로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위해 일한 것이 가장 보람찬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울의 봄’으로 불린 1980년 2월 동아일보의 편집을 모두 책임졌던 당시 일민 김상만 회장을 설득, 권력의 핵이던 세 김씨를 인촌 기념관으로 초치, 그의 초상앞에서 세김씨 등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을 다짐케 했던 것이 반년후 신군부에 의해 동아일보에서 쫓겨나야 했던 원인(遠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 선생을 ‘영원한 언론인’ 이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보도란 ‘사실에 대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것은 주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선생은 신문의 실제 제작과정과 말기 방송경영이외의 시간을 대학과 연구소의 출강, 그리고 활발한 저술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권의 저서를 이번에 대충 재독해 보았습니다만 박선생은 많은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왔고 숨은 인재의 발굴에도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참나주의에 흐르기 쉬운 언론인들에게 학구와 연찬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애를 썼으며 자유기고가로서 권력과는 거

박문송 원로회우 별세

박문송 원로회우가 2월 10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27년 9월 11일 함북 길주에서 출생, 길주농림학교 청진교원대학을 졸업하고 해병대사령부 행정감실 문관으로 근무하다 시사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그 후 시사통신에서 사회부장,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을 지냈고 보건의문 회장, 함경북도 도민회 부회장, 행정자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애영화신문 고문으로 활약한바 있다.



고인은 1980년 11월 ‘4·7 언론인회’ 당시 본회에 입회하여 조직위원회 위원, 이사진을 역임하는 등 초창기 대한언론인회 기반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함경북도 문화상, 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대한언론인회는 2월 11일 오후 4시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은구 회장을 비롯, 임원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인장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4]

박문송 선생 영전에

김은구(대한언론인회 회장)

고 박문송 선배님!

이승을 떠나시는 선배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비웁니다.

강직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기자 정신으로 후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던 南谷 선배님의 부음을 받고는 너무나 갑작스러워 허망하고 허탈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를 주셔서 대한언론인회의 발전 문제를 함께 얘기하셨던 선배님이셨지 않습니까.

1957년 시사통신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서 1960년대 보건사회부와 농림부 출입기자 시절에 부정직품을 찾아내 취재 보도하던 열정을 지금도 기억하는 후진들입니다. 선배님의 반공정신과 정의감은 함경북도 길주군의 고향에서부터 길러졌다고 했었지요. 해방 직후인 길주농업학교 4학년때 천도교 청우당의 조직부장으로 공산당과 싸웠던 데서 시작됐다고 들어왔습니다. 일제말기에는 독립투사 규합에 관한 지령문건 사건으로 일본 헌병대에 끌려갔던 애국의 전력도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6·25전쟁이 나고 1·4 후퇴때 국군의

LST로 남쪽에 온 후에도 공비토벌을 위한 운송작전과 주한 유엔 연합 고문단의 일원으로 북진대열에 끼어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대 하셨다는 회고담을 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언론인 생활에서도 사회부장과 편집국장까지 했으니 “기자로서 대망을 이룬셈” 이라고 자랑하시던 모습도 엿그제 같습니다.

불의에는 항상 참지 못해 투쟁을 마다하지 않아 ‘정의의 사나이’라는 닉네임도 함께 하셨던 선배님이십니다.

언론 퇴역후에는 고향인 길주군 군민회장, 함경북도 도민회 감사와 부회장을 맡아 일하며 망향을 달랬던 선배님이었습니다. 산악애호가로 건강을 과하시며 같은 시기 언론 생활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모임 구일회를 엿그제까지 주관 하셨던 선배님. 어찌 갑작스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두시고 떠나십니까. 그러나 삶과 죽음은 오로지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사나이라고 오래 기억될 남쪽 선배님! 이제 하직을 고합니다. 하늘에서永生 하시옵소서. [4]

리를 두면서도 많은 저작물과 학위수락 연설등으로 좋은 글을 남겼으며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한 가지 사실 뿐” 이라는 요즘 시속을 꼬집는 듯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棺)뚜껑을 닫

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박선생의 소박한 인품과 꾸밈없는 자세가 그리운 요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선생의 기침소리조차 다시 들을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4]

김석성 회우 영전에

내가 김석성 군을 만난 것은 62년 전, 1952년 부안의 농업학교 교실에서였다. 그 친구는 폐결핵과 늑막염에 시달리며 중학교 마지막무렵 2년 동안 요양하느라 휴학했다가 뒤늦게 농고로 들어왔고 나는 전투경찰로 총 들고 산야를 누비다가 2년만에 학창에 복귀했다. 읍내에서 30리나 떨어진 촌사람인 나와 읍내 사람인 김군은 별 파란 없이 진학한 다른 동료들에 비해 어찌면 뜨내기였다.

어느 날 오후 이 친구는 나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다. 수 백평 되는 정원, 군수 관사보다 훨씬 큰 일본식저택, 그런 집에서 우리는 목욕을 했다. 무쇠가마에 무럭무럭 김이 올라오는 그런 안개 속에서 우리는 알몸을 드러냈다. 그 친구가 열 일곱, 내가 한 살 위다. 창피할 것도 없다. 나는 실상 6·25 뒤 2년 몇 달동안 공중탕에 가본 일이 없다. 그때만 해도 내가 아는 친구들 가

운데 집에 목욕탕이 있는 친구는 한사람도 없었다. 또한 그 친구 아버지의 서재에는 세계문학전집이며 일본과 조선의 문학전집, 조선역사지리대계, 미술전집 등이 뽁뽁하게 꽂혀 있고 더구나 수백장의 LP판 명곡 음반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황홀한 음률 속에 취하며 인생을 이야기 하고 세계를 설계했다. 나는 좋은 친구를 얻었다. 나는 중학교 때 기숙사 선배들 덕으로 역사와 문학책을 닦치는 대로 읽었다. 심지어 전투복을 입고 초소 보초를 서거나 중대 진지를 지킬 때 큼직한 미군용 전투복 포켓이 커서 문고본 한 두권은 비상식량처럼 넣고 지냈다. 이러한 하찮은 습관이 뒷날 좋은 친구, 지적 호기

김진배(본회 회우·전 국회의원)

심이 강한 석성이와의 70년 가까운 교류를 지속하는 단초가 될 줄이야.

자네가 가기 한 일주일 전 쯤이던가. 자네는 열심히 자네가 만든 부안문화재단과 선대들이 이룩한 부안여중고 이야기기를 끝도 없이 되풀이 이야기 했어, “자네 어떻게 생각해. 내 말이 맞지, 맞지?” 다짐까지 해가며 좋아했어.

“아, 이 사람아. 내 귀가 꼭 막혔단 말이야. 귀 꼭 막힌 사람 데리고 백번 이야기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손을 저으면서 내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이 사람이! 내 말 좀 들어봐. 자네한테만 하는 말이니깐.”

이렇게 유언처럼 말했어.

“자네는 창자는 고장 났지만 귀는 밝지?” “귀는 좋아. 이빨도 좋고…”이 친

구는 정말 걱정 않고 지탱해온 몸이었다. 액은 64년전에 다 털어버린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며칠을 넘기기 어려운 그런 고비로 보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 싶어 급히 화장실에 다녀와서 쪽지를 써보였다.

“자네나 나나 우리가 아플 때도 되었어. 나이 80 아닌가. 이제 입춘 우수 지내면 곧 나올거야. 따뜻한 봄날 자네 사랑하는 혜숙이랑 우리 정숙이랑 형문이 내외랑 고향 만돌장어집에 가세. 읍내 나그네 횡집에도 가 조기에 고사리 듬뿍 넣고 열큰하게 끓여 소주도 한잔 하세”

이 친구 금방 별떡 일어날 것처럼 생기가 돌았다. 두말 않고 돌아가려고 손을 잡는데 놓아주질 않았다. “아, 이 사람. 벌써 가. 노는 사람이 뭐가 바쁘다고!” 하늘이 무심하구나, 노는 놈은 그대로 놓아두고 할 일 많은 우리 친구 석성이를 데려가다니! [4]



회우동정 가나다순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



권영빈(전 중앙일보 사장)회우= 한국고전번역원은 지난 2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제3대 이사회에 권영빈 본회 회우를 선임했다. 경북 예천출생인 권회우는 중앙일보 사장,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단국대 석좌교수



남선현(전 KBS 워싱턴 특파원)회우= 2014년 새학기부터 단국대 석좌교수로 '방송영상이론과 신문'이란 과목으로 강의한다.

'동문을 빛낸 인물'로 선정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본회 상담역=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총동창회 소식지 '연연춘추34호(2월 12일 발행)에 동문을 빛낸 인물'로 대서특필됐다.

함경북도 도정보고회



박기정(함경북도 지사·전 동아일보 편집국장)회우= 지난 1월 27일 함경북도 도민회 신년 하례회에 참석하는데 이어 2월 6일에는 도정보고회를 가졌다.

'올바른 역사교육' 집필



박석흥(건양대 대우교수)본회 편집위원= 광화문 문화포럼 2월호에 '대한민국은 역사전쟁 중-올바른 역사교육을' 주제로 집필했다.

서울대총장 추천위원 선임



서옥식(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전 연합뉴스 편집국장)회우= 지난 2월 5일 서울대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추천위원으로 선임됐다. 서울대 법인화 전환 이후 첫 간선제 총장 후보 3명을 선출할 총추위는 서울대 교수 등 학내 인사 20명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 10명을 합쳐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여맥회 회장 선임



심의표(전 KBS 부산총국장)회우= 1월 21일 여맥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6년 1월까지다.

고주화 650점 고인쇄박물관에 기탁



이홍기(전 KBS 파리총국장)회우= 상평통보등 우리나라 고주화 650점을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에 기탁. 이 고주화는 이회우가 파리총국장 시절 직지(直指)의 대모인 고 박병선 박사 요청으로 매입해 보관해 오다 박박사의 집념이 담긴 고인쇄박물관에 기탁한 것이다.

인터넷 신문 '뉴 데일리' 회장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상무)본회 부회장= 2월 6일 인터넷 신문 '뉴 데일리' 회장에 취임했다. 인보길 회장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뉴라이트 뉴 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중이었다.

'건국외교부 대부 임병직 박사' 기고



임덕규(영문월간 디프로 머시 회장)회우= 지난 연말 충청향우회가 발행한 충청향우연보에 '건국외교부의 대부 임병직박사'를 집중 조명했다.

신문윤리위 독자불만처리위원



임종건(전 서울경제 사장)= 지난 2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7차총회 이사회에서 독자불만처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성우(聖友)지 창간호에 붓글씨 소개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장)본회 고문= 지난 2월 20일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성우회)가 창간한 성우(聖友)지에 '나이 80에도 붓글씨를 배운다' 제하의 글에서 대한언론인회 서도회를 소개했다.

신임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김동철(金東哲)



1956년 1월 5일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솔개마을 서삼릉 1길 14-201호 010-5381-5620
〈경력사항〉 중앙일보 편집국기자(83-88), 세계일보 사회부기자(88-90),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부국장(2004-2005), 월간중앙 기획위원,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언론진흥재단 NIE특임강사(현)

안병준(安秉峻)



1946년 2월 5일생
서울 중구 왕십리 39길 30 102-901(신당동 한진그랑빌) 2253-9088 / 010-9088-7733
〈경력사항〉 서울신문 수습 21기(77), 서울신문 편집부국장(99), 내일신문 편집국장, 편집위원장(2004), 한국기자협회 31대회장(91-92), 언론중재위원(2005-2011), 한국신문윤리위원 겸 독자불만처리위원장, 인터넷신문 기사심의위원장(현)

이 선(李 善)



1947년 7월 20일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55-11 (대흥그린빌라 301) 031-441-4513 / 010-8518-4513
〈경력사항〉 신아일보 기자(66), 체육부 기자(73-80), 경향신문 출판국 기자, 차장(80-91)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 〈누락자 및 위임장 보내주신분·괄호안은 전직〉

〈누락자〉	
김광섭(중앙일보 편집부국장)	손위수(코리아타임스 자문위원)
조광현(KBS 해설위원)	송종문(중앙일보 시사미디어상무)
	신동호(스포츠조선 사장)
	엄종석(경기도민일보 편집위원)
	오동환(경향신문 논설위원)
	유일연(한국일보 이사)
	윤기병(정무장관실 제1차관)
	은종일(연합통신 전무)
	이배국(유통경제연구소 대표)
	이병국(한국경제 편집부국장)
	이웅희(문공부장관·국회의원)
	정덕교(체신부 전파관리국장)
	정용기(서울신문 편집위원)
	한광희(서울경제 사진부장)
	홍순일(한국일보 논설위원)
〈위임장을 보내 주신 분〉	
강병우(현 JTBC 시청자위원회위원장)	
고재봉(서울신문 출판국장)	
권혁승(서울경제 사장)	
김길홍(국회의원)	
김창구(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김준빈(KBS 전문위원)	
김한영(한국경제 기자)	
민 기(한국경제 편집부국장)	
박승구(동아일보 교열부장)	
박진환(경향신문 체육부장)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1월 28일 부터 2월 27일까지)

고덕환(14)	윤주영(14)
김관태(14)	이철영(14)
김동철(입회비)	이현구(14)
김선기(14)	이홍우(14)
김응환(11,12,13)	정건일(14)
나용경(14)	조천용(14)
박문두(14)	최귀조(14)
박용근(14)	최상목(14)
박준구(14)	홍순일(14)
서병주(14)	
성재삼(14,15)	
송경섭(14)	
송호창(14)	
안병준(입회비)	
안종우(14)	
양성목(14)	
유지호(14)	
이성호(14)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주소·전화번호 변경 ◀

정운종 상임이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9(양우로데오시티 1040호)

본회 기우회, 3월 28일 신춘모임

대한 언론인회 기우회 (회장 정기정)는 오는 3월 28일 (금) 오후 2시 종로 3가 바둑 세계기원에서 신춘 바둑 모임을 갖습니다.

새 봄과 함께 겨우 내내 같고 닮은 회원 여러분의 바둑 실력을 맘껏 뽐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모임은 등위를 가리는 공식 시합은 아니며 회원 누구와도 수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견인차량을 기다려 보신적 있으신가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 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안전지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줄음쉼터 등



견인신청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빠른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ex 한국도로공사

원자력은 만약의 경우까지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중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에너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생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검증을 통해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